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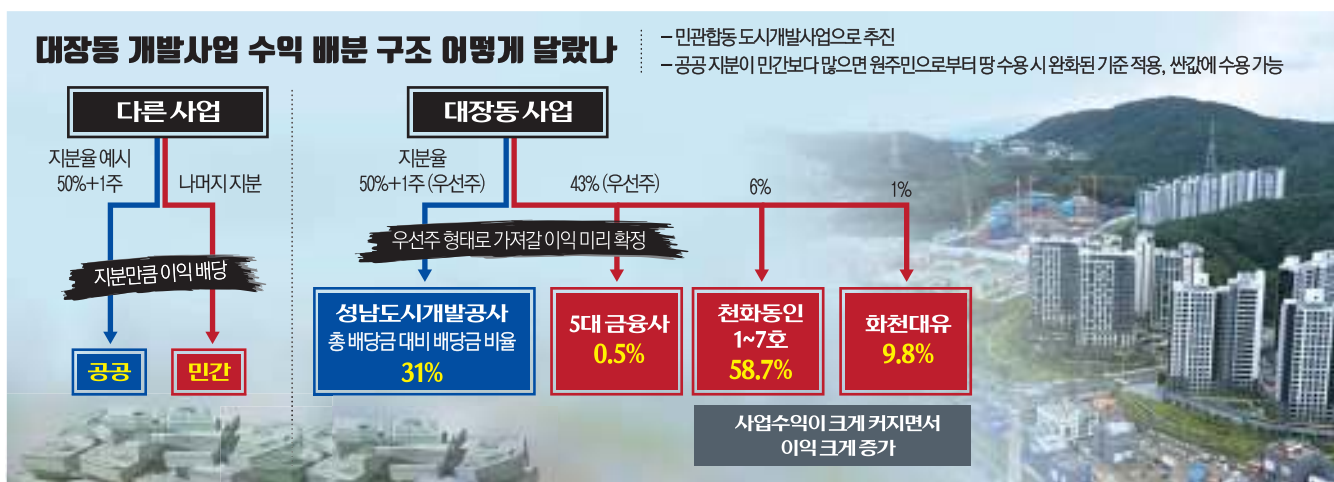
대장동 임대 축소, 이재명 시장 때 정해진 수순이었다

법적 임대주택 비율 25%지만
성남시 협조·유찰 통해 6.72%로
임대부지 9회 유찰돼 분양 전환
성남도개공, LH에 1822억 매각
성남시 지원금 배당금서 충당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이 이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6.72%에 불과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현금배당을 택했을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입수한 화천대유와 한몸인 특수목적법인(SPC) 시행사 성남의뜰의 공문들을 보면 성남의뜰은 임대 부지 A10 구역을 1822억 원 이하로 팔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해 매입 의사를 가졌던 주체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고 1년간 9번이나 유찰된 이유다.

2018년 12월 성남의뜰은 LH에 “A10블록은 감정가가 약 1908억 원이지만 1822억 원에 매각할 계획이다. 1822억 원 미만의 금액으로는 매각 불가”라고 매입 의사를 물었다. 하지만 LH는 “A10 국민임대주택용지와 관련, 귀사에서 제시한 토지공급 조건을 검토한 결과 토지 공급 가격



이 우리 공사가 자체적으로 개발·공급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조성원가의 60%)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매수 거부 의사를 밝혔다.

1822억 원을 고집했던 이유는 2018년 9월 19일 성남의뜰이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에 보낸 검토의견에서 드러난다. 성남의뜰은 “만약 LH 주장을 받아들여서 임대주택용지를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매각할 경우 ‘임대주택용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은 당초 공사와 성남의뜰이 시장가치 평가를 거쳐 정한 1822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 금액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성남의뜰은 1822억 원보다 적은 금액을 (성남도개공에) 이익배분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대주택용지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 배당은 주주협약에 따른 것이다. 주주협약

제3조 5호를 보면 “1종 우선주인 공사(성남도개공)는 본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프로젝트회사의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를 통해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우선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해 놨다.

현금배당을 받을 경우 1822억 원 이상으로 임대 부지가 팔리지 않으면 배당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성남도개공은 임대주택 건설이 아닌 현금배당을 택했다. LH가 통상 상정하는 공급가격을

상회하는 시장가치 평가액이라 매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말이다.

결국 성남도개공의 이런 선택은 결국 분양아파트 건설로 이어졌다. 도시개발업무 처리지침상 임대 부지가 최초 공고일 뒤 6개월 이내 유찰 등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분양 부지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년간 9번 유찰된 임대 부지 A10 구역은 1120가구 중 749가구를 공공분양으로 전환했고, LH에 매각돼 성남도개공은 1822억 원을 배당받았다.

더구나 성남도개공은 2015년 6월 기준 임대주택을 건설물량의 15.29%밖에 잡지 않았다. 도시개발법상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임대주택 비율을 25%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 지침을 근거로 성남시 협조를 받아 10%포인트 줄인 것이다. 여기에 거듭된 유찰을 통한 분양 전환으로 6.72%까지 추가로 줄었다.

관련해 전직 화천대유 관계자는 조선일보를 통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사업 설계 때부터 임대주택 비율 최소화를 통한 수익 극대화 계획을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

종합하자면, 성남도개공의 현금배당 선택이 중국에는 분양 전환 조건을 충족토록 한 것이라, 임대주택 축소를 통한 이익 극대화라는 화천대유 측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다.

한편 성남시는 4월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성남시 재난기본소득인 ‘재난연대안전자금’ 총 942억5000만 원 재원 마련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사업 확정 배당이익금 1822억 원에서 충당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얻은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분양가상한제 피한 화천대유 개발이익 2699억 더 챙겼다”

“LH가 공공택지로 개발했어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2699억 원의 개발이익을 더 챙겼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2699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매입한 대장동 공동주택 4개 구역(A1·A2·A11·A12)에서 아파트를 공급해 1조3890억 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다. 만일 이 구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 매출은 토지비 5173억 원에 기본형건축비 6018억 원을 더한 1조1191억 원에 그쳤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택지비의 경우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5700억 원에 5개 구역(아파트 4개·연립주택 1개)을 매입한 가격을 토대로 추정해 5173억 원이 나왔다.

건축비는 2018년 12월 입주자 공고 당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와

최근 분양한 3개 단지(서초 원베일리·힐스테이트리슈빌 강동·고덕강일 제일풍채)의 건축비 가산비 평균 비율 26.3%를 반영해 계산한 결과 6018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책정한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하면 1조1191억 원이 되는 셈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5월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9년 10월 부활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동별로 ‘핀셋 시행’을 하고 있다. 대장동은 개발사업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애초 계획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로 개발했거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더 빨리 전면적으로 시행했어야 했다”며 “그랬다면 개발이익 일부는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 화천대유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귀속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관합동 방식의 개발이지만 공공 영역이 거의 한 일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임대주택 건설도 전체 공급 물량 5684호 중 595호(국민임대 221호, 행복주택 374호)로 10%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기자 lly0403@

2004년부터 함께한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260만 굿앤굿 어린이와 함께 자랍니다 함께 지원합니다

마음이  합니다
H 현대해상

※ 2021년 2월 기준 어린이보험 보유계약 2,644,990건 (2004~2021년 가입)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 금융 상품에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고의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외의 면책사항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43632호(2021.06.07)

심상치 않은 외국인 ‘팔자’ 행진 ‘퍼펙트 스톰’ 오나

이달 들어서 1.3조 팔아치워
달러 강세, 원화 가치 하락 속도
美 테이퍼링·금리 인상 부담
국내 반도체 전망도 어두워

외국인의 한국 주식 ‘팔자’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 걱정과 중국과 인도의 전력난, 전 세계 인플레이션 우려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거품이 꺼지면 실물 위기와 금융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10월 들어서 1조3000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웠다. 특히 삼성전자(우선주 제외)를 5416억 원 이상 순매도했고, 뒤이어 SK하이닉스(1042억 원), 삼성SDI(885억 원), 기아(616억 원) 등이 순매도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이어지는 상황은 국내 증시에 치명적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일 기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2.83%에 달한다.

외국인의 주식 ‘셀 코리아(Sell Korea)’는 주식시장뿐 아니라 외환시장의 불안도 가중시키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판 돈을 달러로 바꿔 나가면서 6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년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92.3원을 기록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9원 내린 1190.40원에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반등 마감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51.15포인트(1.76%) 오른 2,959.46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마감했다.

외국인의 주식 매도는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 현상과 맞물려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 속도를 부채질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들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차손을 우려해 한국 주식을 매각한다. 그런데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치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원화 약세가 더 가팔라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 상승) 우려가 나오면서 채권 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줬다”며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 채권이나 원화 주식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원화를 많이 매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형태(에버그란데) 이슈, 중국과 인도의 전력난, 전 세계 인플레이션 우려도 외국인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재로 꼽힌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9월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곧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

힌 데 이어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전망이 밝지 않은 것도 문제다. 대만 반도체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세계 D램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며 올해 4분기 D램 가격이 3~8%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반기 들어 외국인은 국내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각각 8조707억 원, 2조819억 원씩 순매도했다.

김연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에너지 수입 비중이 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이러한 물가 상승 압력은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인한 이윤 악화, 실질금리 하락 압력에 따른 채권 투자 매력 감소 및 환율 상승 요인 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가 채권까지 포함한 전체 금융시장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일부 업종에만 집중된 현상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셀 코리아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디폴트 피해야” 美 부채한도 단기 유예 가닥

미국이 사상 초유의 연방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인다. 의회에서 단기 부채 한도 유예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를 열고 민주당에 단기 유예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미치 매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만든 위기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2월까지 현재의 지출 수준을 충당하도록 할 것이고 긴급 부채 한도 유예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민주당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는 시간이 없었던 민주당의 변명을 무마하고 추후 독립된 부채 한도 유예안을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은 현재 인프라 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안을 일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에 맞서고 있다. 이번 결정은 단기 유예안을 허용함으로써 두 법안을 분리하게 하려는 공화당의 의도로 풀이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전날 “부채 한도 유예안이 18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연방정부 디폴트와 함께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공화당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연말까지 이 같은 위험 부담은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제안이 단기적인 해소용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재닛 옐런(왼쪽에서 두 번째) 재무장관과 함께 재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우린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공화당이 위기를 3개월만 해소하고 다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려는 것은 모두를 당황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내가 알기로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었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와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 월가 수장들과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제인 프라이저 씨티그룹 최고경영자(CEO)는 “현 상황은 불안정”이라며 “디폴트는 미국 명성에 손상을 입히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2021 국정감사

포천시 내리도시개발사업도 대장동 닮은 꼴?

같은 업체가 타당성 용역 진행
2019년 조사 토대로 공사 시작
국힘 최춘식 의원 “수사 필요”

성남 대장동 사업과 닮은 도시개발사업이 경기 포천에서도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이 용역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성남시 소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2019년 2월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바 있다. 당시 용역 결과는 “도시 재생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높은 사

업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수익창출 등을 위해 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포천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4개월 뒤 공사를 출범시켰다.

포천시 개발 관련 용역을 이끈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총괄본부장 성모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김모 씨 등 실무자 2명도 두 용역에 모두 참여했다. 사업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대장동 용역의 경우, 3주 만에 마무리

하면서 ‘부실’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아울러 포천도시공사 유한기 초대 사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역임하며 대장동 특혜 사건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핵심 인물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유동규는 성남도공 실세라서 ‘유원’, 유한기는 유동규가 영입해 ‘유투’라고 불렀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포천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하는 내촌면 ‘내리도시개발사업’이 ‘민

간사업자를 선정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공사가 51%, 민간사업자가 49%의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전대유 등 일부 세력이 막대한 이익을 남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발점은 엉터리 타당성 평가”라며 “해당 용역팀이 포천도시공사의 설립에도 관여했기에 포천 도시개발 사업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노태문 “편의점 ‘겔럭시4 판매’는 국민지원금과 무관”

핸드폰 사장에 반도체 질문도
권철승 “소상공인 보상에 최선”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이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편의점에서 ‘갤럭시워치4’를 판매한 것이 고의적이라는 국회의 지적에 “해당 프로모션은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 1등 기업인 삼성전자와 유통 대기업인 이마트24가 정부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절박한 영세 소상공인 밥그릇을 가로채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이마트24는 8월 말부터 이마트24 전국 직영점 10곳에서 갤럭시시

치4와 갤럭시버즈2 등의 상품을 판매했다. 원칙적으로 직영점은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주가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시기와 겹치게 ‘카탈로그’ 특판 형태로 제품을 온라인 판매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증인으로 참석한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 제품의 편의점 판매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마트24 측과 협의해서 진행한 것”이라며 “프로모션 준비 기간은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알 수 없는 때였고, 판매 채널에 대해서도 직영점에서만 공급한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노 사장은 “이번 프로모션은 소비자 구매 편의 제공과 경쟁사 제품에 대응하기 위해서이지,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무선사업부를 대표하는 노 사장에게 반도체 관련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8일 발표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곱하기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권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률, 고정비 부분 등을 고려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실보상 시 상한제를 두는 방안에 대해선 “상한선 문제도 손실보상심의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심의위는 8일 회의를 열고 7~9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관한 세부적인 손실보상 방법과 기준을 정한다. 현재 예산은 1조 원이 편성됐다. 권 장관은 관련 예산 확대 가능성 질의에 대해 “예산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재정 당국과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가용 예산을 더 사용할



권철승 중기벤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벤처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기준에 대해) 가장 적절한 부분을 찾겠지만, 결론이 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워드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선 “방역의 고삐를 풀었을 때 어떻게 될지 약간의 우려가 있지만 처음 백신이 없었을 때와 지금은 코로나19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심민규 수습기자 wildboar@

“액화수소가 경쟁력” 민관 손잡고 기술 개발 박차

지역난방공사, 수소액화기술 국산화
조만간 1단계 연구 중간발표

SK E&S, 美기업과 합작사 설립
국내 액화수소 유통시장 확대

효성중, 세계 최대 공장 건설 추진

본격적인 수소시대를 앞두고 ‘액화 수소’ 개발에 민관이 모두 속도를 내고 있다. 액화 수소는 기체인 수소를 초저온 상태로 액화한 것을 말한다. 기체일 때와 비교하면 부피가 8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대용량으로 저장 또는 수송이 가능해 ‘수소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조만간 ‘수소액화기술 단계별 국산화를 위한 1단계 연구’ 중간발표회를 연다.

공사는 앞서 수소 액화 기술 관련 국내 기술 수준을 파악, 소재와 부품·장비 제작

액화 수소 민관 추진 현황

한국지역난방공사

- 수소 액화플랜트 국산화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개발 가능 업체 조사
- 수소 액화 단계적 국산화 로드맵 수립
- 수소 액화 경제성 분석 및 경제성 제고 방안 검토

SK(주)

- 수소 사업 추진단 신설

효성중공업

- 린데 그룹과 액화 수소 합작법인 추진

SK E&S

- 美 수소에너지 기업 ‘플러그파워’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

두산중공업

- 경남 창원 액화 수소 플랜트 건설 (2022년 완공)

기술의 자립을 위한 단계적 국산화 로드맵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수소 액화플랜트 및 액체 수소 이용 기술, 설비, 비용 및 국내외 현황 조사 △수소 액화플랜트 국산화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개발 가능 업체 조사와 기술 수준 분석 △수소 액화 단계적 국산화 로드맵 수립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이용 설비 통합 방안 △수소 액화 경제성 분석 및 경제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SK, 효성 등 민간 기업들도 액화 수소

사업에 하나둘씩 뛰어들고 있다.

독일·미국·일본·프랑스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지만, 합작법인(JV)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SK그룹의 투자 지주회사 SK주는 수소 사업 전담 조직인 ‘수소 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국내 액화 수소 생산설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SK E&S는 미국 수소에너지 기업 ‘플러그파워’와 아시아 수소 사업 공동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합작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SK E&S는 합작법인을 활용해 대동 단계인 국내 액화 수소 유통 시장을 확대한다.

효성중공업도 글로벌 산업용 가스 전문 화학기업 린데 그룹과 액화 수소 사업 추진을 위한 합작법인 투자 계약을 맺었다. 린데 수소는 2023년 초까지 효성그룹의 울산 용연공장 부지에 연산 1만3000톤(t) 규모의 액화 수소 공장을 건설한다.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다. 여기서 생산하는 액화 수소는 매년 10만 대의 수소차에 연

료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13만 톤의 배기가스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두산중공업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경남 창원에 블루 수소를 만드는 수소액화플랜트를 짓고 있다. 블루 수소란 수소를 추출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최소화한 공정으로 만든 수소다. 이를 위해 두산중공업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활용·저장하는 기술(CCUS)을 적용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액화 수소는 수소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활용 등 수소 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열쇠”라며 “액화 수소가 본격 상용화된 다음에야 수소 산업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수소 활용 분야에서 국내 액화 수소의 기술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체·액화 수소 열차’와 관련한 동향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액화 수소의 국내의 기술 수준, 타 모빌리티 적용 사례, 관련 규제 등 제반 환경에 대해 분석한다. 액화 수소를 열차 연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타진하는 차원이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 서구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보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수소 선도국 도약’ 천명

“기업과 원팀 탄소중립 실현”

수소경제 성과·비전 발표

수소 사용량 390만톤 확대

글로벌 수소기업 30곳 육성

민간기업도 ‘43兆+α’ 투자

현대모비스 등 민간기업이 2030년까지 수소 관련 분야에 ‘43조 원+α’를 투자한다. 정부도 수소 사용량을 현재 22만 톤에서 390만 톤으로 늘리고 2030년까지 글로벌 수소기업 30곳을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청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국가비전’을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그린·블루수소 등 생산 분야 11조 원 △액화플랜트 등 저장·유통 8조 원 △발전·수소차 등 활용 분야 23조 원 등이다. 민간기업도 청정수소 생산, 액화수소 생산·유통, 수소연료전지와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2030년까지 43조 원+α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22만 톤 수준의 수소 사용량을 2030년 390만 톤, 2050년 2700만 톤까지 확대하고 청정수소 비

율을 2030년 50%, 2050년 100%로 높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이 수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고,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 저감 수단으로서 수소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했다”며 “정부는 기업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미래 국가경쟁력에 직결되고 있다”며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며 2050년 1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각국은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으며 기업들도 치열한 경쟁에 뛰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나라는 수소활용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더해져 수소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됐다”며 “특히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분야는 세계 1등 선도 국가의 위치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whan@



대·중소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의 길,

공동 프로젝트 보증이
밝게 비춥니다

신용보증기금이
프로젝트의 혁신성을 심사해
보증을 지원합니다

KDIT 신용보증기금

출산율 1.4명 핀란드도 보험료율 인상 논의하는데… “초저출산 韓 연금 개혁 시급”

연금학회, 핀란드 모델 소개
핀란드 연금 지급시기 자동 조정
보험료율 자동 인상도 검토
전문가 “韓 보험료율 조정 불가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 지출 구조조정과 보험료율 인상 등 한국의 연금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7년 지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데 이어 현재 수입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 중인 핀란드가 좋은 본보기다. 한국연금학회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핀란드 연금센터(Finnish Centre for Pensions)와 공동으로 온라인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한국 연금 개혁의 롤 모델로서 핀란드 연금 개혁 사례가 소개됐다. 핀란드 연금센터에 따르면, 핀란드는 소득비례연금(한국의 국민연금)과 국민·보증연금(한국의 기초·장애연금 등)을 운영 중이다. 이 중 핵심인 소득비례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24% 수준이다. 한국의 약 2.7배다. 고용주가 3분의 2를 부담하는 대신 한국처럼 별도의 퇴직급여를 적립하지 않는다. 핀란드는 2017년 기대여명에 따라 정년, 지급 개시연령, 지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현재 약 60%인 소득 대체율은 장기적으로 45%까지 하락하게 된다. 이런 핀란드에서도 추가적인 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하다. 미코 카우토 핀란드 연금센터 의장은 발제에서 “보험료를 통한 수입이 지출만큼 빠르게 늘지 않는다. 출산율 감소 때문”이라며 “기여분을 늘릴 수 없다면 계속해서 연금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합계출산율이 1.45명으로 유지된다면 핀란드의 2080년 필요 보험료율은 30%에 머물지만, 1명으로 하락한다면 37%로 급등하게 된다. 출산율 하락이 계속된다면 거기에 맞춰 보험료율을 자동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낮은 보험료율, 가파른 저출산으로

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한국에선 연금 개혁 논의가 답보 상태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향상 속도가 선진국 중 가장 빠르고, 악화되는 저출산 현상으로 매년 출생아 수가 30만 명을 넘어서기 어렵다”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할 때 인구 변동 상황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완 강남대 교수와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다층적 연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속 가능한 재정 안정성 확보와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우선 과제로, 소득 보장성 강화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이루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영

“모더나 맞은 젊은 남성 심근염 증가” 스웨덴·덴마크 일부 연령 접종 중단

AZ 치료제, FDA에 첫 승인 신청
스웨덴과 덴마크가 젊은 층에 대한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 북유럽 4개국에서 취합된 미국개 예비 자료 분석 결과,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젊은 층에서 심장 관련 염증이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웨덴과 덴마크 보건당국은 연구 결과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젊은 층에서 심근염과 심낭염 발생 위험이 소폭 증가했다면서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심근염은 심장 근육에 생긴 염증을,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얇은 막(심낭)에 생긴 염증을 뜻한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후 4주 이내 특히 2주 안에 해당 부작용 발생 위험이 증가했고 주로 젊은 성인 남성이나 남자 청소년에게서 나타났다”면서 “1991년 이후 출생자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30세 이하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은 12월

1일까지 중단되고 이들은 대신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덴마크 보건당국도 같은 자료를 언급하면서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젊은 층에서 심장 염증이 증가한다는 의혹이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18세 미만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EMA는 7월 처음으로 12~17세를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 승인을 권고했다. 드물지만 위험한 백신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쏠린다. 이런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AZ)는 전날 세계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코로나19 장기 항체 치료제의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AZ는 “해당 치료제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77%의 효과를 봤다”면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지만 만성 질환을 갖고 있거나 알레르기 위험이 있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예방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스타벅스 직원 트럭시위 스타벅스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트럭이 7일 서울 강남역 인근 도로에 정차해 있다. 이번 트럭시위는 지난달 28일 스타벅스의 대화용 컵 무료 제공 이벤트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스타벅스가 음료 주문 시 대화용 컵을 무료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이자 매장에는 고객이 몰려 북새통이 됐다. 이에 스타벅스 직원들이 인력 부족 등을 제기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공공의대, 도서벽지 의무복무가 도입 취지”

국감 ‘취약지역 의사 부족’ 질의에
“법안 심의해달라” 국회 협조 요청
비혼출산 정자은행 제도화도 공감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의사 확충 문제가 다시 다뤄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당장 의과대학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등 확충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며 “이에 대해 의·정 협의는 물론,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했으나, 총파업을 불사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에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2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의협의 불참 등으로 의·정 협의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권 장관은 울릉도 등 도서벽지 근무를 자원하는 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취약지역이 매우 많은 상황”이라며 “국립의원원에서 교육을 받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국립의원원과 공공의대의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으로 화두가 된 정자은행 필요성에 대해선 “다른 나라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제도화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법적 기준이 있어야 하고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통계청 작년 조사에 의하면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70%라고 한다”며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구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공공 정자은행은 정자형성 장애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 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건강한 정자를 보관하고 있다가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국내에는 국가 차원의 정자은행이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공 정자은행이 없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영

〈가산〉 외평채 13억 달러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

“해외 투자자 견고한 신뢰 재확인”
또 정부 최초 유로화 녹색채권도

정부가 13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행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했다. 세계 경제 불안에도 우리 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7일 “약 13억 달러(5억 달러+7억 유로)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외평채는 외국환평행기금이 외화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자금은 외환보유액으로 운용한다. 달러화 외평채 가산금리는 기존 최저 50bp(작년)에서 25bp로 낮아졌고, 유로화 외평채는 35bp(작년)에서 13bp로 가산금리가 축소됐다. 달러화 외평채 가산금리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사잔존만기 외평채의 유통 가산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유로화 표시 외평채는 아시아 정부 최초의 유로화 녹색채권(그린본드)으로 발행됐다.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채권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 ESG 중 그린에 집중된 그린본드를 발행해 우량 투자 유치 효과가 꽤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외평채 발행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견고한 신뢰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신흥국 부채 리스크 등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임에도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자금 조달 비용도 당분간 감축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디지털농업인과 국가표준 개정 ‘소통의 장’

농기술재단, 13일 포럼 정기총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디지털농업인들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국가표준 개정에 나선다. 재단은 13일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방식인 ‘줌(ZOOM)’을 활용해 열린다.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은 디지털농업 분야 단체 및 국가표준의 제·개정 표준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2017년부터 매해 총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디지털농업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스마트팜ICT융합표준화포럼 소개 및 표준화 현황 △디지털농업 국가표준화 확산지원 사업 기본계획 △디지털농업 연구·개발(R&D) 및 산업

표준 추진방향 발표 △신규 단체표준 제정(안) 소개 및 의결 △국가표준 개정(안) 소개 및 의결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총회 이후에는 표준 안전별 수렴된 의견을 표준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는 표준을 수정·반영해 절차에 따라 제·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총회에서 의결되는 디지털농업 분야 국가표준 개정(안)은 ‘KS X 3279 스마트 축사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1건이며, 올해 신규 재단 단체표준은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온실 ICT 기자재 MIB 정보체계’ 등 총 13건이 의결된다. 이번 포럼의 사무국 및 디지털농업 분야 단체표준 제정 기관인 재단은 그동안 디지털농업의 발전을 위해 표준화 추진과 표준의 고도화, 스마트팜ICT기자재 현장 확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유튜브에서 **LG미래송 Q** 을 검색해보세요



| 옥수수로 만드는 LG화학의 친환경 신소재 |



| 신약개발 속도를 높이는 LG AI연구원의 인공지능 기술 |



| 내 생활에 맞춰 집안일을 돕는 LG전자의 미래 가전 |

[미래로 부르는 미래] 뮤직비디오 감상하기



LG, 이런 **미래** 가능해?

옥수수로 만든 페트병이 지구를 지키는 미래

AI가 신약개발 속도를 확~ 올려주는 미래

스마트 가전이 집안일을 알아서 척척 돕는 미래

젊은 도전이 모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이재명 구속 가능성” vs “이낙연 내부 총질”

명·낙 ‘대장동’ 극한 대치
이낙연 측 “배임 결정적 제보”
이재명 측 “국민의힘 프레임”
與 합수본·野 특검 공방 속
청와대 “합수본 동의 안했다”

대장동 의혹을 두고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설치 가능성도 새어 나오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재명 지사의 배임 혐의 가능성을 대두시키면서 칼끝을 겨누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검찰과 경찰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정부 합수본 설치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합수본이나 특검이나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자, 청와대 역시 7일 입장을 내며 여당과 정부 합수본을 구성하는데 동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 언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당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7일 성남시 대한수의사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 국회사진취재단·연합뉴스

에서 야당의 특검 요구를 막기 위해 합수본 구성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청와대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5일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이 각자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데 진행 경과에 따라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는 등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민주당 경선이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면서 양측의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민주당 의원 역시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경선 투표일에 맞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배임 혐의’ 가능성을 대두시켰다. 설 의원은 이 지



사의 배임 및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결정적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의 본선 경쟁력에 의구심을 제시하면서 위기로 불을 지피며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야권의 프레임에 씌우며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박했다.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결

선 없이 대선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9일과 10일 경기 지역경선과 서울 지역경선·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17만 표가량이 필요하다. 이 지사는 이미 54만5537표를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16만~17만 표(42%에 해당)만 더 얻으면 된다. 이 때문에 이 지사의 무난한 승리가 점쳐지는 가운데 야권 또한 특검 관철을 위한 투쟁 강도 격상 의지를 드러낸 형국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선 이재명 지사로 대선 후보가 확정되더라도 대장동 게이트로 인한 지지율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해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건데, 그럼에도 남은 경선에서 사실상 역전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전 대표 입장에서 경선 이후라도 자신의 정치적 길을 모색하기 위한 인데, 사실상 경선이 끝나면 이 전 대표의 주장은 힘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엄 소장은 “민주당 대선 본선 후보로 된 이상 경선이 끝나면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대로 합수본이나 특검으로 흘러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신귀주대첩
강감찬:
오마주하다

관악
강감찬축제

Gwanak Gang Gamchan Festival

10.14.목_10.17.일

낙성대공원, 별빛내린천 / 온라인 공간

2021

주최 | 관악구

주관 | 관악문화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원희룡·황교안·최재형〉

元·黃·崔 오늘 누가 웃을까

국민의힘 후보 2차 컷오프
윤석열·홍준표·유승민 통과 점쳐져
4위 턱걸이 놓고 ‘당심’ 잡기 총력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2차 컷오프 결과가 8일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선 윤석열·홍준표·유승민 세 후보의 통과가 점쳐지는 가운데 다른 후보들은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이며 당심과 여론 잡기에 최선을 다했다.

국민의힘은 8일 당원 투표 30%, 일반 여론 70%의 비율을 반영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4명의 본경선 후보를 확정한다. 그동안 여론조사의 흐름을 비춰 봤을 때 본경선 진출이 유력한 후보는 윤석열·홍준표·유승민 세 후보다. 그 외의 후보들은 막판까지 4위에 들기 위해 당심은 물론 여론 잡기에 나섰다. 원희룡 후보 캠프는 그동안 방송 출연에 집중했고 6일부터 당원들

에게 투표를 독려했다. 캠프 관계자는 “아무래도 지역을 도는 일정은 주요 후보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간 방송 위주로 나갔다”며 “일반 여론 쪽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황교안 후보는 자신의 강점인 당심을 확고하게 얻기 위해 노력했다. 계속해서 강경한 보수색을 드러냈던 황 후보는 마지막 날까지도 경기도당을 방문해 당심 얻기에 주력했다. 최재형 후보 역시 당심에 집중했다. 최 후보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원 쪽은 무난한 것 같은데 국민 인지도가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당원에서 지지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전략”이라며 “당원에게선 3위, 국민에게선 4위 내지는 5위를 해서 합치면 4위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본경선에 오른 후보들은 11일부터 전국을 돌며 토론을 진행한다. 최종 후보는 11월 5일 전당대회를 통해 발표된다.

박준상 기자 jooon@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초중고 근무 허위경력 제출”

與, 대학 출강 위해 조작 의혹 제기

여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대학 강의를 위해 교육 경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가 2004년 서일대 강의를 위해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997~1998년 서울 대도초, 1998년 서울 광남중, 2001년 서울 영락고에서 근무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학교) 근무 이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교생 실습을 해당 학교 근무 경력, 그것도 강의 경력으로 포함할 수는 없다”면서 “2001년 서울 영락여상 미술강사 근무 이력만 있으면서도 대도초, 광남중, 영락고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실수가 아니고 명백한 고의”라고 밝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 씨가 허위 경력으로 서일대와 안양대 등에서 시간강사로 일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사문서 위조, 대학 교원 채용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각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점검했는데, 해당 연도의 근무자 명단에 (김 씨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원 권익 향상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중국+인도〉

‘친디아 전력난’에 세계경제 먹구름

中, 헝다 위기·제조업 위축 겹치며
4분기 성장률 전망 5.0%→3.6%
인도 석탄위기에 경기회복 악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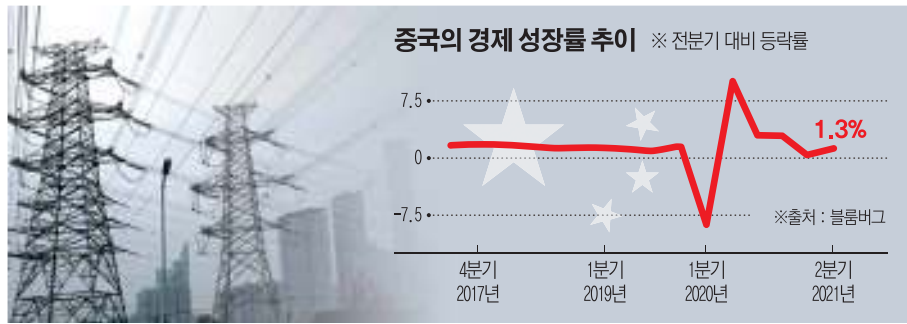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친디아(중국·인도)가 심각한 전력난에 허덕이면서, 올해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이 꺾이고 있다.

6일(현지시간) 영국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헝다그룹(영문명 에버그린데) 파산 위기 등 부동산 부분의 위축과 전력 부족에 따른 제조업 활동 타격으로 4분기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글로벌 경제분석·전망기관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중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0%에서 3.6%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종전 5.8%에서 5.4%로 낮춰잡았다.

앞서 미국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 역시 지난달 말 전력 부족 사태와 감산이 경제에 심각한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면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8.2%에서 7.8%로 내렸고, 일본 노무라증권 또한 2021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8.2%에서 7.7%로 수정했다.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과 거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일궈왔던 인도도 최근 화력발전소 석탄 재고가 점차 동이



나면서 대규모 정전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인도 중앙전력청은 전날 보고서에서 국내 135개 석탄 화력발전소 가운데 무려 63곳의 석탄 재고량이 이를 이하라고 밝혔다. 이미 17개 화력발전소는 석탄 재고가 다 떨어진 상태이며, 5일치 이하 재고량으로 가동되고 있는 발전소도 무려 75개 곳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전력난이 인도의 국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연례 축제 시즌을 앞둔 상태다. CNN방송은 “일반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에어컨 사용이 줄어들면서 전력망에 대한 압력이 완화되지만, 인도는 오는 11월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디왈리(등명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것은 또 다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인디아레이팅스&리서치의 수닐 쿠마르 신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이후 경제

는 정상화하기 시작했고, 성장세도 회복되고 있었다”면서 “만일 지금 이 시기 전력 부족으로 인한 타격을 받는다면, 이는 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도는 총 전력 생산량의 약 66%가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온다. 정부가 석탄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도 역시 중국과 비슷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신하는 지적했다. 노무라증권 애널리스트들 역시 “(인도가 석탄 위기를 빨리 벗어나지 못한다면) 전력업체들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석탄을 수입할 가능성에 맞닥뜨리게 된다”며 “이것은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두 나라의 경제 위기가 글로벌 경기 회복을 발목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친디아는 가파른 경제 성장으로 그동안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다.

변효선 기자 hsbyun@

천장 뚫린 에너지 가격 미·러 ‘비축자원’ 쏟아

바이든 “비축유 방출 검토”
푸틴 “천연가스 공급 확대”

글로벌 에너지 가격에 고삐가 풀렸다. ‘트리플’ 약재가 에너지 시장을 강타하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됐던 수요가 빠르게 회복된 반면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 주요국의 선부는 ‘탈탄소’ 전환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연료값 상승 여파로 ‘스테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경고음이 커지자 에너지 대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글로벌 석탄 벤치마크인 호주 뉴캐슬 전력용 연료탄 가격은 톤당 202달러(약 24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세 배나 뛰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여파로 작년 감소했던 전 세계 석탄 사용량이 올해는 2019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석탄은 전 세계 전력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석탄 생산량은 코로나 이전보다 5% 적은 수준이다. 석탄 생산업체들은 광산에 장비를 설치하는 데만도 9개월 이상 걸린 반면 단시간 내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탄 가격 상승은 다른 원자재로 도미노 효과를 내고 있다. 석탄 대란에 천연가스가 대체재로 부상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전날 유럽의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사상 최고치인 메가와트시(MWh)당 116.02유로까지 치솟았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모스크바 관저에서 에너지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모스크바/AP연합뉴스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전 세계가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를 과시하고 나섰다. 그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에너지 화상회의에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러시아가 준비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온 신뢰할 만한 공급국으로 올해 천연가스를 포함한 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를 유럽에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날 런던 거래소에서 40% 이상 뛰며 거래를 시작한 천연가스 11월 인도분 가격은 9% 떨어진 100만BTU(열량단위)당 2.71파운드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도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자 비상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전략비축유 방출을 검토 중”이라며 “원유 수출 일시 금지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 상승 여파로 미국의 휘발유 평균 소비자 가격도 1갤런당 3.22달러(리터당 약 1020원)로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올랐다.

김서영 기자 0jung2@

“피해 보고 안 해도 처벌” 美 사이버보안 정책 강화

올해 들어 파이프라인부터 병원, 지하철까지 여러 주요 산업군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미국이 사이버 보안 정책 강화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컴퓨터 해킹 손해를 입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사이버 보안 관련 기록을 허위로 남기는 정부 계약업체와 기업들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리사 모나코 법무차관은 ‘아스펜 사이버 서밋’에 참석해 “해킹 사례를 공개하지 않거나 보안 표준 미비로 연방 지원금을 낭비하는 계약업체에 대해 ‘허위청구법’이라는 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오랜 기간 기업은 피해 사실을 보고하는 것보다 숨기는 것이 낫다는 잘못된 믿음 아래 침묵을 택했다”며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기업을 추적해 매우 무거운 벌금을 매길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자금 세탁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상자산(가상화폐) 전담팀을 부처 내에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러시아에 본사를 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에 따른 것으로, 당국은 최소 8개의 해커 조직이 이곳에서 가



리사 모나코 미국 법무차관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상자산을 세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와 별도로 국토안보부는 사이버 공격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철도와 항공 부문에 대한 사이버 보안 지침 강화를 지시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장관은 ‘빌링턴 사이버보안 서밋’에서 “교통안전국(TSA)이 주요 철도와 항공기관에 사이버 보안 의무 지침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관들은 연말까지 사이버 보안 담당자를 선임하고 사이버 공격을 받을 때를 대비한 비상 복구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일련의 움직임은 파이프라인 등이 해킹 피해를 본 후 사이버 보안 강화에 나선 바이든 정부의 결정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파키스탄 강진으로 최소 20명 사망

7일 파키스탄 남서부 지역 하르나이에에서 거주민들이 무너진 집을 수색하고 있다. 이날 새벽 3시경 하르나이에 약 14km 떨어진 곳에서 진도 5.7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하르나이는 탄광이 밀집해 있고 교통과 통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에 당국이 구조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 대부분이 진흙집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 무너졌다”며 “구조대원들이 외딴 산악지역을 수색하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르나이/AFP연합뉴스

“2030년까지 테슬라 잡는다” GM 선전포고

전기차 확대·공유 사업 구축… 5년 평균 매출 두배인 2800억 달러 목표 제시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의 메리 바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를 제치고 미국 전기차 시장 1위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라인업 확장을 통해 전기차 매출을 늘리는 동시에 자율주행차량 공유 등 관련 서비스 사업을 구축해 10년 안에 매출을 2배 늘려 궁극적으로 테슬라를 뛰어넘겠다는 구상이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라 CEO는 이날 미시간주 워런의 GM 기술센터에서 열린 투자자 행사에서 “GM이 그간 쌓아온 명성과 판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계획”이라면서 “2030년까지 매출을 최근 5년간 평균치인 1400억 달러(약 166조4600억 원)의 두 배인 2800억 달러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기차 매출은 2023년 100억 달러대를 찍고 2030년께는 900억 달러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영업이익률의 경우 지난해 7.9%에서 2030년 12~14%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GM은 이미 올해 초 2035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엔진 차량을 생산하지 않겠다고면서 전기차로의 ‘올인’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바라 CEO는 최근 4년간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접는 행보를 보였다. 절감한 비용을 자율주행과 전기차 분야에 배팅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GM이 얼티엄(전기차 배터리) 프로젝트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신사업에 책정한 자금만 350억 달러에 달한다. GM은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사인 얼티엄셀즈를 설립해 배터리 직접 생

산에도 착수한 상태다.

회사는 이날 3만 달러 가격대의 보급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모델을 중심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슬라의 보급형 세단인 모델3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3년에 출시 예정인 ‘올트라 크루즈’는 기존 반자율주행 시스템 ‘슈퍼 크루즈’의 차기 버전으로 운전자들이 주행 상황의 95% 동안 운전대에서 손을 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다.

GM은 자율주행차량 공유, 배송, 자동차 보험과 방위산업 계약 등 신규 사업에서 800억 달러의 매출을 목표로 한다. 이중 소프트웨어 플랫폼 서비스 ‘올티파이’를 통해 연간 200억~2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캐시 환전액 절반 줄게” 소개팅 앱 ‘로맨스 스캠’ 주의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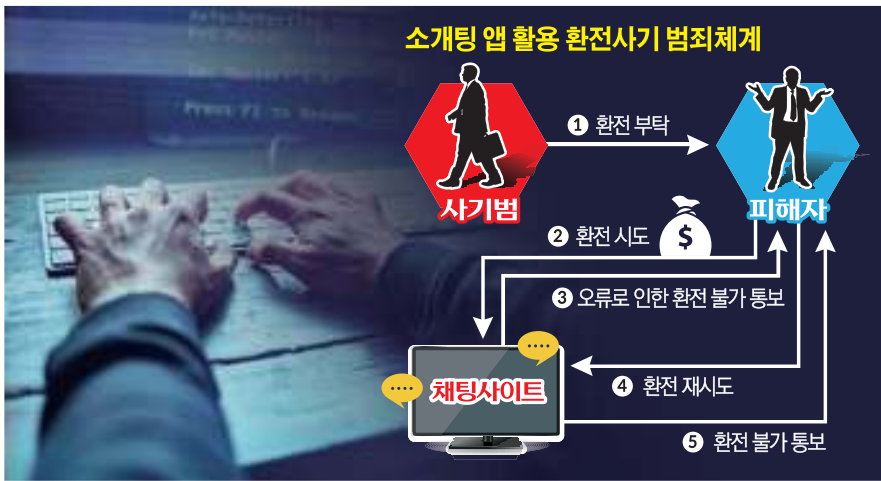
연락한지 이틀 만에 현금화 제안
자가격리 이유 대면 만남은 꺼려
환전 수수료 갈취 등 범행 일삼아
사기범 계좌 지급정지 적용 난항
차명계좌 많아 피해금 회수 어려워

“나 이거 가족한테 얘기하면 격리 끝나고 하는 사업 못 할 수 있어. 부모님 아시면 큰일 나.”

지난 8월 1일 본지 기자가 ‘환전 사기’를 취재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던 A씨는 기자에게 약 7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A씨는 연락을 시작한 첫날부터 이름과 나이, 사는 곳을 말하며 자신의 신원이 확실하다는 걸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 중이라며 대면 만남의 여지는 차단했다.

카카오톡으로 영화와 음식 등 일상적인 얘기를 이어가던 A씨는 돌연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며 한 가지 부탁을 해왔다. A씨는 “(미국) 캔자스에 있으면서 놀았던 채팅 사이트가 있다”며 “문제가 생겨 운영진 이랑 얘기했는데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채팅 사이트에 캐시 충전해놓은 금액을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자에게 충전금을 선물로 줄 테니 현금으로 환전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액은 1350만 원이었다. A씨는 현금화에 성공하면 기자에게 절반인 675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연락한 지 이틀 만이었다.

최근 이처럼 타깃에게 접근하기 쉬운 소



로맨스 스캠 (ROMANCE SCAM)

로맨스와 스캠의 합성어. SNS를 통해 상대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후 돈을 가로채는 사기의 일종.

개팅 앱을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데이팅 앱 시장 규모는 830억 원으로, 이로 인한 금융 사기 피해 규모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다. 현재도 소개팅 앱 악용 사기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모여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피해자 추산 피해액은 15억8565만 원이며, 피해자 수는 110명이다.

사기범들은 타깃의 성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이들의 돈을 갈취했다. 타깃이 남성일 경우 A씨처럼 본

인이 채팅 사이트 캐시 충전 금액을 환전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부탁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충전 금액이 며칠 뒤면 만료돼 현금으로 환전하려고 했지만, 충전한 본인은 환전할 수 없다는 사이트 방침을 내세운다. 여성일 경우엔 채팅 사이트의 환전 기능은 여성만 이용할 수 있다며 환전을 부탁했다. 일부 채팅 사이트가 여성에게 더 많은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이 충전금을 선물해줄 테니 대신 환전을 한 후 충전금을 반으로 나누자고 제안한다. 실제로 A씨는 본지 기자에게 “대화를 해보면 느낌이랄까 있다”며 “그 부분(환전한 충전금)을 받고 잠수 탄다고 해도 원망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때 타깃이 환전을 해주겠다고 하면 사이트 방침을 설명하며, 환전하려면 ‘퀵 환전 아이템’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한다. 채팅 사이트별로 다르지만, 이 아이템은 평균 35만 원이다.

사이트는 아이템을 구매해 환전을 하려



A씨와 나눈 대화내용 캡처.

고 하면 환전을 신청한 금액의 10~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입력한 계좌번호가 잘못됐다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이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또다시 퀵 환전 아이템을 구매하고, 수수료를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 금액을 늘린다. 한 피해자는 이 방식으로 8000만 원을 갈취당했다.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진 소속 박영생 변호사는 “최초 연락 당사자 말고 사이트 운영자, 사이트 상담원 이런 쪽 통해서도 (피해자들이) 비용 지급 관련 독촉을 받는다”며 “이런 걸 보면 사실상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채팅 사이트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피해자를 상대로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세 조작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환전 사기로 3000만 원을 잃은 B씨는 사건 한 달 뒤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이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사기당한 3000만 원을

해결해주겠다고며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다. 그는 “돈은 우리(채팅 사이트)가 보내줄 테니까 우리가 사라는 거(종목) 사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로맨스 스캠에 대해 사기범의 계좌 이용을 막는 지급정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급 정지 신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일 때 가능한데, 환전 사기와 같은 로맨스 스캠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볼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 간 감정을 나눈 채팅에 따른 금융 거래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 이 같은 로맨스 스캠과 관련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지긴 힘든 것이다. 금융위는 관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 손잡고 신종 금융사기를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전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피해자들이 돈을 보낸 계좌의 소유주는 환전 사기범이 아닌 단순히 계좌를 대여해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 사기범을 잡기 힘든 이유에서다. 사기범을 잡았다 해도 그가 돈이 없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징역을 살겠다고 주장할 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데이팅 앱을 악용한 일부 조직의 경우 유령 회사를 세우거나 가상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피해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며 “이런 치밀함 탓에 당사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문수빈 기자 bean@

“대장동 개발 참여 하나銀·SK증권 법적 요건 충족 땐 검사 실시할 것”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감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 지적에
정은보 원장 “법적 권한 없어
금융사 사회적 책임 유도할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는 조직 운영 신념을 국정감사에서 여과 없이 드러냈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 SK증권에 대한 검사 계획 질문에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하겠다”고 말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하나은행과 SK증권이 금융실명법을 내세우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차명 투자 의혹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 기관으로서 진행에 충실해야 하는 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며 “검정수사관 이후에 관련된 검사 하겠다고 한 것은 현재 수사 당국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감독원에 검사해야 할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를 나가는 데는 전제조건이 있다”며 “당시에는 검사할만한 조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 충족되지 않았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회계감리를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나 감리 관련해서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하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법을 우선하는 정 원장의 발언은 채용비리 관련 질의에서도 이어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 이후 우리·대우·부산은행과 달리 광주은행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질문에 답변하면서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에서 대해서 금감원이 관련된 조사를 하고 관련 제재를 하는 것은 금융 관련 법 위반을 전제로 해서 이뤄지고 있다”며 “채용과 관련

된 잘못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권한을 가지고 할 여지는 없다. 다만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인지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권고하고 유도할 수 있을지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그동안 수차례 언급한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 위기)’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정 원장은 “시장 여건이 반전됐을 때 위험한 부분이 은행권에서는 신용대출, 증권 쪽에서는 신용매입과 같은 부분”이라며 “신용대출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대출이기 때문에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저희도 타이트하게 관련 제도를 바꿨다”며 “기존 소득 2배까지 되던 것을 1배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퍼펙트 스톰과 관련해서 그는 “처음에는 태풍이 크지 않게 발생했지만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태풍의 힘을 배가하는 과정에서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저금리 기조나 인구 구조적 문제,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이 그러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의 독립을 위해 입법개정이 필요하냐”는 “금융위와 상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답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김유진 기자 eugene@

서지연 기자 sjy@

신한銀, 업계 첫 적도 원칙 연간보고서 발간

신한은행은 지난해 적도 원칙을 채택한 후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 원칙 연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적도 원칙이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원칙으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환경 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 주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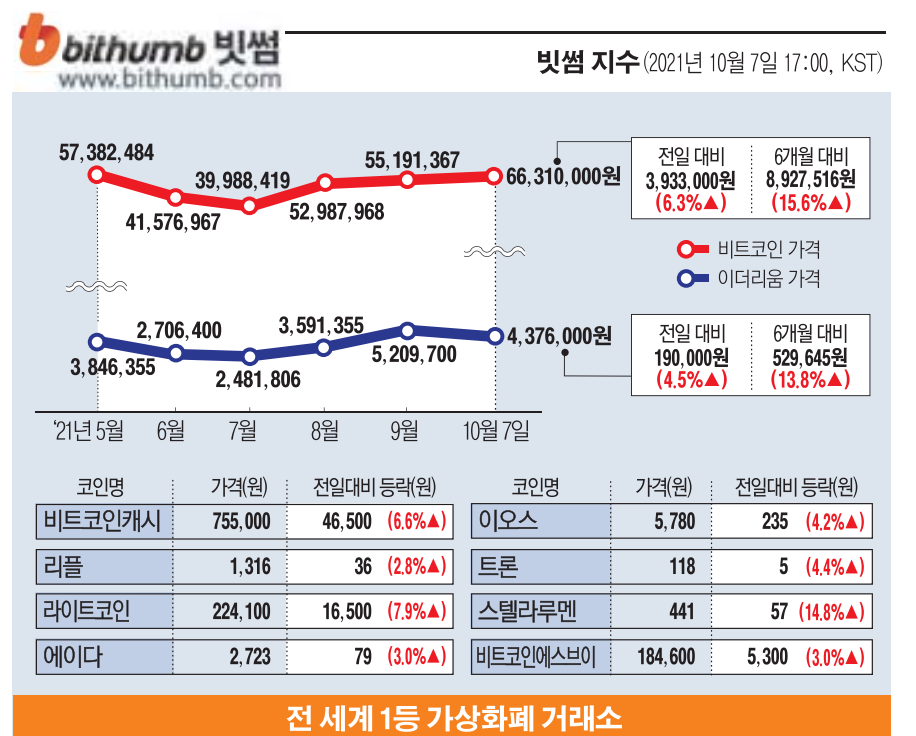
지난달 기준 38개국 124개 금융기관이 적도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적도 원칙 서문에 있는 ‘우리의 환경조항이나 사회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대출할 수 없다’는 문구에 따라 적도 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은 엄격한 대출 심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최초의 적도원칙 가입 은행으로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노

력에 대해 외부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적도 원칙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를 통해 △프로젝트 실시 전 사업지 및 인근의 환경사회 현황 파악 △적용되는 환경사회 기준 준수 △관리 시스템 및 계획 수립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참여 실시 △고충 처리 메커니즘 구축 여부 등 적도원칙 요구 사항 전반의 이행 여부를 심사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적도원칙 검토와 심사를 통해 여신 및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고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한다”며 “신한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에서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WON
NOW

원하는 생활을
지금 바로

이사가고 싶은 집을 발견한 유정 씨도
멋진 사업 아이템이 떠오른 경진 씨도
스마트폰이 어려웠던 할머니도
원하는 것을 지금 바로 누릴 수 있도록

시작하세요
디지털 금융 우리WON이 만들어 갈
전혀 새로운 금융 생활

우리금융그룹의 디지털 브랜드
우리WON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 우리카드

| 우리금융캐피탈

| 우리종합금융

|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신탁 | 우리자산운용 | 우리신용정보 | 우리펀드서비스 |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 우리글로벌자산운용 | 우리에프아이에스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치솟는 원·달러 환율, 달러 상품에 돈 몰린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금, 달러 등 안전자산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미 달러를 띄우면서 달러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7일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이투데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강 달러에 베풀하는 삼성KODEX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ETF의 1개월 수익률은 지난 6일을 기준으로 +5.40%를 기록했다. 키움KOSEF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상장지수ETF와 미래에셋TIGER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ETF의 수익률 역시 각각 +5.34%, +5.30%를 기록했다. 이들 종목의 수익률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각각 +19.06%, +18.97%, +18.82%를 기록 중이다.

이밖에 삼성KODEX미국달러선물특별

조기 테이퍼링·인플레 우려…
美 국채금리 뛰자 달러도 경총
달러선물ETF 등 수익률 급등
당분간 달러화 강세 지속 전망

자산상장지수ETF와 키움KOSEF미국달러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ETF의 1개월 수익률은 각각 2.67%, 2.66%로 나타났다. 이들 종목의 수익률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각각 +9.41%, +9.39%로 나타났다. 반대로 달러 가격이 떨어질 때 수익을 내는 삼성KODEX미국달러선물인버스2X ETF, 키움KOSEF미국달러선물인버스2XETF, 미래에셋TIGER미국달러선물인버스2XETF의 1개월 수익률은 각각 -5.24%, -5.23%, -5.21%를 기록했다.

펀드명	1개월	3개월	연초이후 수익률
삼성KODEX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ETF	5.40	10.06	19.06%
키움KOSEF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상장지수ETF	5.34	10.07	18.97%
미래에셋TIGER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ETF	5.30	9.85	18.82%
삼성KODEX미국달러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ETF	2.67	5.00	9.41%
키움KOSEF미국달러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ETF	2.66	5.03	9.39%
삼성KODEX미국달러선물인버스2XETF	-5.24	-9.66	-17.68%
미래에셋TIGER미국달러선물인버스2XETF	-5.21	-9.58	-17.80%
키움KOSEF미국달러선물인버스2XETF	-5.23	-9.83	-17.97%

이들 종목의 수익률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각각 -17.68%, -17.97%, -17.80%로 나타났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는 건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경계감 속에 미 국채금리가 급등한 영향 때문이다. 여기에 ADP 민간고용이 56만8000명 증가해 시장 예상을 상

회한 점도 미 국채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며 6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저점이었던 9월 13일(1.2790%) 대비 0.2573%포인트 오른 1.5363%를 기록했다.

시장전문가들은 달러화의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연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원·달

러 급등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이나 높은 레벨은 유지될 것”이라며 “미국 9월 고용 지표 발표를 기점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 당분간 원·달러는 1170~1200원의 높은 레벨에서 움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효진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연말 및 2022년 원화 강세 전망을 유지한다”며 “각국의 물가 안정 노력, 한국 수출 최고치 기록 등 원화 약세 요인과 함께 아직 반영하지 못한 원화 강세 요인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9월 수출은 예상치를 하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역대 최고치 수출과 두드러진 원화 약세는 어색한 조합”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지속에도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며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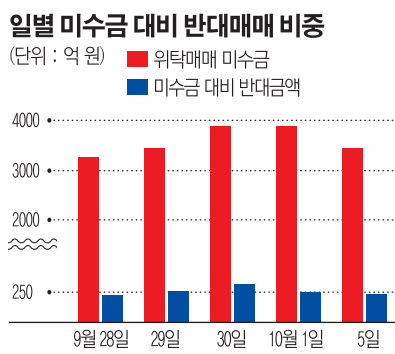
“빚투하다 쪽박 찰라” 반대매매 공포 확산

신용거래계좌 강제처분 급증
반대매매 5거래일간 1262억
전문가 “아직 증시 바닥 아냐
높은 레버리지 사용 자제해야”

코스피지수가 3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자 반대매매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대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용거래, CFD 중심으로 반대매매 물량 출회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 증시 하락상을 키우고, 다시 투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큰 시기여서 높은 레버리지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조언한다.

7일 A증권사 지점 관계자는 며칠 전부터 신용거래를 이용하는 고객 계좌에 증거금 부족이 뜨기 시작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대매매를 막으려 빚을 내 증거금을 맞춘 고객들마저 다시 주가가 떨어지자 위기에 처하게 됐다. 6일 장중 코스피지수 2900, 코스닥지수가 920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강제 처분이 확정된 고객 계좌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5거래일(9월 28일~10월 5일)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반대매매 금액은 총 1261억8100만 원



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52억3600만 원 규모의 반대매매가 터진 셈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9.2%까지 오르기도 했다.

반대매매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후, 주가가 하락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증권사에서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단기 융자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보유 주식의 주가가 떨어져 통상 담보유지비율이 140% 이하로 내려가면, 증권사는 부족분만큼의 주식을 팔아버린다.

반대매매는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의 부작용으로 해석된다.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종목별 신용비율이 높은 코스닥지수가 급락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이날 기준 코스닥 내 신용비율 상위 종목은 선광(14.05%), 한국전자인증(11.55%), 아이텍(11.39%) 등

이다.

고액 자산가의 빚투로 불리는 CFD(차액결제거래)서비스도 반대매매 ‘뇌관’으로 꼽힌다. CFD는 40%의 증거금만 내면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사고 팔아 매매차익을 챙길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만큼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 증시 충격이 배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가에서는 아직 증시가 바닥을 친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을 키우는 고비가 쌓였지만, 출구 찾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에서다. 높은 레버리지 사용도 자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문종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스피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234조4000억 원, 순이익 192조9000억 원으로 전주 대비 소폭 올랐다”며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 상승 가능성, 중국 전력난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올해 4분기와 내년 실적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한다.

이어 “반등 트리거는 신용국 백신 보급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해소와 원자재 가격 안정화로 보고 있다”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생산시설이 있는 국가들의 백신접종률이 40%를 밑돌고, 그린플레이션 현상이 빨라지면서 우려가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아 기자 lijh@

반등장에도 맥 못춘 SK하이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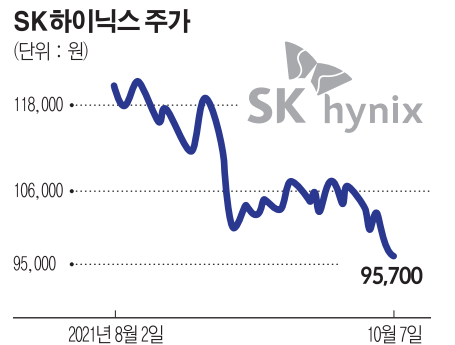
0.83% 내린 9만5700원 마감
4분기 메모리 가격 하락 우려
증권가 잇단 목표가 하향조정

SK하이닉스가 7일 다시 연저점을 갈아치웠다. 골드만삭스가 투자자의견을 기존 강력매수에서 ‘중립’으로, 목표주가를 기존 17만7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각각 내린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0.83%(800원) 떨어진 9만5700원에 마감했다. 장 중에는 9만5000원까지 떨어졌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PC용 메모리반도체 주문량 감소, 공급망 문제에 따른 모바일·서버용 반도체 부문의 악화 등으로 인해 가격 부진이 전망된다”며 투자자의견과 목표주가 하향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도 SK하이닉스에 대



한 투자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를 기존 11만5000원에서 9만65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남대중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4분기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2조7000억 원, 4조5000억 원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고객사들의 높아진 재고 수준과 증가하는 공급량으로 D램, 낸드(NAND) 모두 고점가격 하락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고점가격 하락세는 심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외부위탁운용관리〉

KB증권, 연기금 OCIO 시장 본격 진출

장애인고용·임금채권보장기금 주간운용사 확정

KB증권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주간운용사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KB증권은 올해 10월부터 4년간 대체투자 주간운용사로서 두 기금의 대체투자 자산 운용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고용 및 임채기금의 니즈를 반영하여 부동산, 인프라, PEF를 포함한 국내외 대체투자 자산군에 대한 투자 및 성과관리,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가 해당된다.

KB증권은 기관영업부문 내에 OCIO솔루션부를 신설해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왔다. OCIO 시장과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공적자금 및 대형 연기금 솔루션을 도출하고 전달할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5월 합류한 김성희 상무(OCIO 솔루션 총괄)는 2001년 OCIO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투자폴 제도도 도입될 때부터 시작해 대형 공적 기금인 산재보험기금의 운용까지 전담해온 OCIO 전문가로 그 동안 참여한 OCIO 입

찰 및 운용·관리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낸 바 있어, 향후 KB증권의 OCIO 사업확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희 상무는 “증권사의 다양한 비즈니스와 역량을 결집하여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을 이끌어 내는 데에 집중하겠다”며 “이번 장애인고용 및 임채기금 대체투자 주간운용사 선정을 계기로 다가오는 2022년 주택도시기금 및 2023년 고용·산재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재선정 등 확대되고 있는 OCIO 시장에서 KB증권이 보다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한국투자증권, 고액자산가 맞춤형 랩 출시

170개 글로벌 자산 분산투자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초고액자산가 맞춤형 랩 서비스 ‘한국투자마이스터패밀리오피스랩’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투자마이스터패밀리오피스랩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인베스코(Invesco)의 자문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랩 서비스다. 단기 시장 상황과 장기 기대수익 및 리스크 전망

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이머징 주식과 채권을 비롯해 시니어론, 인프라, 글로벌 리츠 등 170개 이상의 자산에 걸쳐 분산투자한다.

여러 자산에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자산별로 차등 수수료를 부과해 고객들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현금성 자산은 수수료 차감 없이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제공해 가입 후에도 투자대기 현금유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인아 기자 lijh@

中 전력난에… 정유·화학 ‘웃고’ 태양광 다운스트림 ‘울고’

정유, 정제마진 개선 실적 청신호
화학, PVC 생산량 감소 가격 강세

태양광, 폴리실리콘 13% 급등
원재료 가격부담 실적 ‘안갯속’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시작된 전력난 여파로 국내 관련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유·화학 산업과 태양광 업스트림 산업은 수혜를 입는 반면 태양광 다운스트림 산업은 당분간 수익 전망이 불투명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유·화학산업은 전력난 속에 오히려 웃고 있다. 석탄과 천연가스의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덕분이다.

세계 석탄 가격의 기준이 되는 호주 뉴캐슬 발전용 석탄 가격은 최근 t(톤)당 200달러를 넘어서며 연초 대비 100% 이

중국 전력대란 관련 국내 업계 영향	
정유	• 석탄,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유가 상승 • 석유계 발전소 가동률도 상승해 정제마진 개선 가능성
화학	• 석탄 가격 급등으로 인한 PVC, EMG 생산량 감소로 화학제품 가격 강세 지속될 전망
태양광(업스트림)	• 석탄 공급 부족에 따른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으로 실적 호조 예상
태양광(다운스트림)	• 태양광 모듈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 부담 상승으로 당분간 실적 회복 불투명

상 급등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동북아 지역 LNG 가격지표인 일본·한국 가격지표(JKM)도 11월 선적분 기준 100만 BTU(열량단위) 당 56.326달러로 전일 대비 42% 올랐다.

한화투자증권 정정영, 전우제 연구원은 정유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유가도 상승하면서 단기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라면서 “에너지 생산을 위해 석유계 발전소 가동률도 상승하면서 정제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화학업계도 전력대란으로 제품 가격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반사이익을 볼 전망이다.

백영찬 KB증권 연구원은 “중국 전력난 이슈로 화학제품 가격이 상승했다”면서 “특히 석탄 가격 급등으로 석탄베이스 PVC(폴리염화비닐)와 MEG(모노에틸렌글리콜)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화학제품 가격의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태양광 산업은 업스트림(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과 다운스트림(셀, 모듈)의 희비가 엇갈린다. 태양광 모듈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전력대란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태양광 시장 분석기관 PV인사이트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은 kg(킬로그램)당 32.6달러로 전주

보다 13.3% 급등했다.

중국 폴리실리콘 제조기업들은 석탄발전을 기반으로 공장을 가동한다. 폴리실리콘 생산에서 전력비가 생산 원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석탄 공급 부족에 따라 원가가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에 업스트림 산업은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으로 실적 호조를 이어가지만, 원재료 가격 부담을 짊어지는 다운스트림 산업은 당분간 실적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조철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메탈실리콘(폴리실리콘의 원재료) 생산지인 운남성이 전력 감산 조치를 발표한 이후 중국 내 메탈실리콘 가격이 수직 상승했다”면서 “메탈실리콘 가격 급등이 태양광의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의 3분기 영업 실적 전망치도 영향을 받게 됐다. 전력대란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정유·화학 업계는 실적 호조를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에쓰오일(S-Oil)은 3분기 영업이익이 46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화학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각각 3719억 원, 5687억 원으로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를 훌쩍 넘는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태양광 업계는 영업이익 전망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 전력대란으로 수혜를 얻는 국내 유일 폴리실리콘 제조사 OCI는 3분기 1922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돼 전년 동기 대비 961%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다운스트림 업체인 한화솔루션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814억 원으로 전년 동기(2332억 원)보다 22%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D-100 기념 행사를 맞이하는 10월 말부터 중국 전력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다솜 수습기자 citizen@

두산家 R&D 역량, 용인으로 ‘헤쳐 모여’

2026년 첨단기술 R&D센터 건립
그룹 계열사 인프라·정보 공유
수소 등 신성장동력 창출 시너지

두산이 경기도 용인시에 그룹 첨단기술 연구·개발(R&D) 센터를 건립한다. 수소기술 연구시설을 비롯한 그룹 내 R&D 역량을 한곳에 모아 기술 개발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두산은 경기도 용인시와 그룹 첨단기술 R&D센터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두산은 연내 신규 부지를 확보하고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센터를 추진한다.

두산은 우선 내년 하반기까지 수소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시설을 최우선으로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설 R&D센터에는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퓨얼셀,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 등에서 수소비즈니스 밸류체인 의 각 분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부문



두산은 경기도 용인시와 그룹 첨단기술 R&D센터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제공 두산

이 모인다. 또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수도권에 분산된 수소기술 연구시설을 한 자리에 설치한다.

이를 포함해 R&D센터에는 그룹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R&D 역량이 모여 인프라와 기술, 정보를 공유한다.

이에 따라 계열사 사이에 더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핵심기술 공동 개발 등을 수행하게 된다.

두산그룹은 연구개발을 통해 수소 시장 선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4월에는 두산중공업, 두산퓨얼셀 등 계열사 전문인력을 모아 ㈜두산

지주 부문에 수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수소 TF는 글로벌 수소 시장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 확보 전략을 세운다.

계열사별로 ㈜두산은 영국 세레스파워와 손잡고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기술을 개발한다. 800도 이상 고온에서 작동하는 SOFC는 다른 연료전지보다 전력 효율이 높다.

두산중공업은 청정수소 생산에 속도를 낸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창원 공장에 건설 중인 수소액화플랜트에서는 블루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다.

두산 관계자는 “신설되는 R&D센터는 수소기술을 비롯한 그룹의 성장동력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산은 R&D센터 건립을 통해 용인시가 미래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최태원(오른쪽) SK그룹 회장이 6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플러그파워 앤드류 J. 마시 CEO를 만나 수소 생태계 구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SK그룹

최태원, 美 그린에너지 기업 수장과 연쇄 회동

“넷제로 조기 달성 시너지 기대” 가속화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이에 마시 CEO는 “양사의 강점을 앞세워 아시아 지역 수소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화답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에도 SK서린사옥에서 SK E&S가 지난달 95%의 지분을 확보한 美 그리드 솔루션 기업 KCE(Key Capture Energy) 제프 비숍(Jeff Bishop) CEO를 만나 에너지 솔루션 시장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드 솔루션은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전력공급의 변동성과 전력망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기를 저장하는 시설인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하되, 송전망과 배전망에 연계된 ESS를 인공지능(AI)기술과 접목해 전기의 수요·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이다.

이다솜 수습기자 citizen@

갤S22, 연말 조기 출시 없던 일로… 내년 2월 공개 전망

폴더블폰 기대 이상 ‘홍행질주’
하반기 부품 수급 악화 영향 분석

삼성전자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2’가 내년 2월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앞서 업계에서는 갤럭시S22의 올 연말 공개설이 나오는 등 조기 출격이 점쳐진 바 있다. 내년 2월 공개된다면, 오히려 전작 갤럭시S21이 공개된 1월 중순보다도

한 달 가량 늦는 셈이다.

7일 IT전문 매체 샘모바일은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갤럭시S22 공개 계획을 미뤄 내년 2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2’가 개최되기 전 갤럭시S22시리즈의 언팩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가 실제로 갤럭시S22 출시를 늦춘다면,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스마트폰 업체의

90%가 스마트폰 부품 공급에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반기 출하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갤럭시S21 FE(팬에디션)’ 출시 일정 역시 가약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샘모바일은 출시 취소설이 돌던 갤럭시S21 FE가 내년 1월 조용히 일부국가에 출시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22의 조기 출격을 망설이는 또 다른 이유는 폴더블폰 갤럭시Z 시리즈가 기대 이상의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송영록 기자 syr@

현대차, 어린이 통학전용 ‘스타리아 킨더’ 출시

현대자동차가 어린이 통학 전용 ‘스타리아 킨더(사진)’를 7일 출시했다. LPG 신차 보조금을 활용하면 200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다.

스타리아 킨더는 스타리아 LPi 3.5 투어러 모던 기반의 11인승과 15인승 두 가

지 트림으로 나온다.

주요 탑승객인 어린이를 고려해 11인승은 어린이 신체 조건에 맞게 안전띠를 할 수 있도록 ‘안전띠 높이 조절 장치’를 기본으로 갖췄다. 15인승은 전 좌석을 어린이 전용 시트로 개조, 3점식 높이 조절



가능 안전띠와 안전띠 착용 확인 시스템을 갖췄다. 김준형 기자 junior@

디지털혁신 속도내는 KT “IoT·AI로 소방안전 지킨다”

“화재 감지기 오작동 많고 정밀 안전점검 주먹구구식”
DX 연동 설비 법제화 추진… 지능형 감지기 등 구축

디지털 혁신(DX)에 나선 KT가 소방 안전 서비스도 디지털로 개혁신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화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이어, 소방시설안전·옥상비상문안전 등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박윤성 KT AI·DX환경안전사업담당 상무는 7일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KT는 ‘디지코(DIGICO)’ 기반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 데이터, 클라우드를 기반 삼아 산업 혁신을 이끄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것이 목표다. 환경과 안전 관련 DX 사업을 벌인 이유다.

KT 측은 소방 관련 불량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데다 소방시설 정상관리를 위한 실

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 중이라고 실태를 설명했다. 박 상무는 “소방 관련 종합 정밀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5000평 되는 건물을 2시간 만에 점검하는 경우도 있다”며 “화재 감지기도 오작동하는 때도 많아 경비실에서(감지기를) 꺼놓기도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감지기가 오작동한다 해도 장비가 우선 기반으로 돼 있어 이 정보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KT는 법정 소방설비에 대해 안전 DX 플랫폼을 연동하는 종합소방안전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소방안전 DX 플랫폼을 통해 화재 감지부터 비상벨, 비상문 안전 서비스까지 종합 소방안전 서비스도 개발한다. 박 상무는 “최근 화두인 ESG 경영과



KT가 서비스할 소방시설안전(FPS24·왼쪽)과 옥상비상문안전(SEE 24) 설비 제품 이미지.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산업 환경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고 국민 안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KT는 화재 취약영역을 중심으로 종합 소방안전 서비스를 추진한다. IoT를 통해 지능형 화재감지, 스마트 비상벨 등 다양한 안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어 안전사업 자체를 DX화 하고, ICT를 기반 삼아 법정설비 시장에 진입한 뒤 TV 등 KT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화재 경보를 알리는 융·복합 DX까지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상무는 “기존 법정 소방 설비 시장이 굉장히 크다. KT가 진입하려는 것은 비법정 시장으로 점차 화재 감지기 등이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설을 공급하던 레거시 사업자와 KT 등 DX 사업자의 협력을 통해 기존엔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고객 수요를 만족하게 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과도 있었다. 박 상무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조기 감지를 통해 큰 화재를 막은 것들이 누적 43건, 올해만 7건 정도”라며 “IoT와 AI를 적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충분히 (화재를 막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건물 안에서 쌓이는 소방 설비 데이터를 IoT·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 및 대응할 수 있고, 화재 예방을 위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실시간 관제가 어

려운 시장을 KT 기술을 기반으로 차별화해 DX를 추진하고 있고, 민간 사업자로서 서비스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제화에 실제 소방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KT는 이날 소방시설안전, 옥상비상문 안전 등 2개 소방안전 서비스도 내놔다. 소방시설안전(FPS24) 서비스는 건물의 화재 수신기와 연동해 소방장비의 현황, 화재감지 등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건물의 소방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옥상비상문 안전(SEE 24) 서비스의 경우 옥상 등에 설치된 비상문에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해 위급상황에 신속히 비상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첨단 소방안전 DX는 리모텔링 중인 광화문 WEST 사옥에 적용된다. 지능형 화재감지기, 화재 대피 안내서비스, 화재 수신기, 경보기 등 차별화한 서비스를 만나 볼 수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LG유플, AR기술로 버스에 정보 제공

LG유플러스는 애니렉티브와 함께 친환경 버스에서 투영 OLED 기반 5G AR·메타버스 플랫폼(ARAD)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강종오(왼쪽) LG유플러스 스마트시티사업담당 상무와 임성현 애니렉티브 대표가 서울 애니렉티브 사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중기부, 시범상가 39곳에 스마트기술 보급

스마트 미래·3D 프린터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기술 추가 보급에 나섰다.

중기부는 7일 소상공인의 비대면·디지털화를 촉진할 스마트 시범상가에 상반기 선정된 74개에 이어 총 39곳(복합형 19, 일반형 20)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9곳의 복합형 시범상가는 스마트 미래, 3차원(3D) 프린터 등 소상공인의 경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스마트기술이 주로 도입한다.

20곳의 일반형 시범상가는 모바일 기기·큐아르(QR) 코드 등을 활용해 비대면 주문이 가능한 스마트오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상가 내 상점 위치, 취급 제

품, 지역 명소 등을 안내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총 6개 시범상가에 보급된다.

특히 이번 시범상가 선정은 전국 각지에 고루 분배됐다. 울산 중구의 ‘웰컴시티’ 상가는 울산에서 최초로 선정된 스마트 시범상가이며 스마트 미래, 키오스크 등의 도입으로 울산지역의 스마트화를 선도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한다. 또한 김제전통시장(전북 김제), 무학시장(충북 충주), 영일대해수욕장 상가(경북 포항) 등 전국 각지의 다양한 상가들이 꼽혔다.

중기부는 올해 중에 스마트기술·오더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 2022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스마트기술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경영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들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고종민 기자 kjm@

스타트업 선호도 높아졌지만 인력난은 여전

스타트업 트렌드 설문조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춤했던 스타트업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질적인 ‘인력난’은 여전히 문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스얼)와 오픈서베이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1’을 발표했다.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는 2014년부터 스얼과 오픈서베이가 공동 시행해 온 설문조사로, 매년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의 변화를 분석해 업계 트렌드를 파악한다. 올해는 8월 5일부터 19일까지 총 15일간 오픈서베이를 통해 창업자 164명, 대기업 재직자 250명, 스타트업 재직자 250명, 취업준비생 200명을 조사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평가는 올해 긍정적인 분위기로 전환했다. 올해 스타트업 생태계 분위기에 대한 인식은 79점으로 전년(71점) 대비 대폭 올랐다. 생태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이유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적으로 인식한 이유로는 ‘벤처캐피탈의 미온적 지원(36.4%)’이 꼽혔다.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인해 스타트업 취업 및 이직 선호도가 높아진 점도 눈에 띈다. 대기업 재직자가 스타트업 이직을 고려하는 비율은 19.2%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늘었다. 취업준

‘사회적 인식 개선’ 긍정적

‘금전적 보상’은 채용 걸림돌

비생의 스타트업 이직·취업 고려율 또한 지난해(23.0%) 대비 7.5%포인트 늘어난 30.5%로 집계됐다.

그런데도 스타트업계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모습이다. 창업자 65.2%는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70.1%가 전년 대비 인력난이 심해졌다고 응답했다. 스타트업 재직자 역시 54.4%가 인력난을 체감하고 있고, 46.8%가 작년보다 문제가 심해졌다고 답했다.

채용 영향 요인으로는 금전적 보상이 가장 많이 꼽혔다. 창업자들은 중요한 채용 영향 요인으로 금전적 보상(40.9%), 창업자 및 기업 인지도(26.2%)를 들었고, 스타트업 재직자는 스타트업으로 이직 시 금전적 보상(44.8%), 기업이 추구하는 비전 및 창업자 철학(19.2%), 복지(17.2%) 순으로 신경 쓸 것이라고 응답했다.

직무 분야를 보면 연구·개발, 정보기술·전산·IT, 마케팅·홍보에서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발 분야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어진 개발자 모시기 전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 내 채용에서 활용하는 채용요인은 기업이 추구하는 비전 및 창업자 철학(72.6%)과 수평적 조직문화(61.6%)가 가장 많았다.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는 최근 벤처투자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를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혔다. 창업자들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점으로 ‘기반자금 확보·투자 활성화(38.4%)’를 뽑았다. 이어 규제 완화(34.8%), 우수인력 확보(33.5%) 순이다.

‘벤처 1세대’ 출신 기업과 가장 선호하는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스타트업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을 묻는 설문에서는 네이버(31.7%)가 6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카카오는 15.9%로 2위에 올랐지만, 전년(21.1%)보다 선호도가 5.1%포인트 줄었다.

가장 선호하는 VC를 묻자 알토스벤처스(20.7%)가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카카오펀더스(18.9%), 소프트뱅크벤처스(14.6%)가 뒤를 이었다. 또한 가장 선호하는 액셀러레이터로는 프라이머(18.9%)가 1위를, 퓨처플레이(10.4%)와 매쉬업엔젤스(10.4%)가 공동 2위를 각각 차지했다. 벤처 1세대가 후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은 셈이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등 적정한 산업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원격의료와 노동법·근로기준법에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다원 기자 leedw@

벤처투자 80% 수도권 편중… 투자전문인력 서울 집중

모태펀드 지방 비중 3.2% 불과

벤처투자의 80%가 수도권에 편중된 가운데 투자 전문인력이 서울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8월 벤처기업 및 투자 활성화 실적을 토대로 ‘제2 벤처붐’을 선언했으나 ‘비수도권은 벤처투자 활성화의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으로 결성된 ‘모태펀드’ 내 지방펀드 비중은 지방계정이 신설된 2014년 3.7%에서 2020년 4.4%로 소

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7년간 평균 비중은 3.2%에 불과했다

2005년 신설된 모태펀드의 출자 총액이 올해 7월 말 기준 총 6조247억 원 중 지방펀드 규모는 4.4% 기준 약 2650억 원에 불과한 것이다.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의 상황도 비슷했다. 2020년 기준 모태자펀드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910개사가 2조9093억 원을 투자받은 가운데 대상업체의 73%(1395개사), 투자금액의 77%인 2조2398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서울(953개사, 1조1567억 원)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인프라와 투자전문인력의 수도권

몰림도 여전했다. 2020년 기준 창업투자회사의 90%(149개사), 액셀러레이터의 59%(168명)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또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받은 지역별 및 연도별 전문인력 현황은 전문인력의 88%가 서울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경호 의원은 “벤처투자의 양적 지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현장에서 뒷받침해줄 전문인력 양성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부처를 대상으로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활용해 투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문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종민 기자 kjm@

최대 +50% 더 나가는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

BIG BANG 문의) 1544-8070



ESG way to Green Earth



친환경 금융의 시작, 솔과 물리가 앞장섭니다

신한금융그룹의 대표 캐릭터인 **SOL EXPLORERS**는
북극성에서 지구별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솔과 탐험대 친구들입니다

군살 빼고 리빙 승부수... 롯데百 황범석의 ‘선택과 집중’

‘가구 1위’ 한샘 지분인수 참여
잠실점·건대점 리빙관 리뉴얼
첫 희망퇴직으로 체질개선 나서

‘취임 2년차’ 황범석(사진) 롯데백화점 대표의 경영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이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백화점 사업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백화점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명품을 중심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온라인의 성장 속에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황 대표의 연말 경영 키워드는 ‘선택’과 ‘집중’으로 분석된다. 그는 집객 유도에 효과적인 상품으로 평가되는 ‘리빙·인테리어’를 중심으로 사업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과감한 인력 구조조정을 선택해 조직의 군살을 빼고 있다.

황 대표는 먼저 백화점과 마트, 슈퍼 등을 총괄하는 계열사인 롯데쇼핑을 통해 리빙 강화의 ‘큰 판’을 깔았다.

롯데쇼핑은 지난달 IMM 프라이빗에쿼티(PE)에 2595억 원을 출자하고 ‘가구 1위’ 한샘 지분 인수 참여를 확정했다. 롯데쇼핑은 전략적 투자자로 한샘 인수에 참가한다. IMM PE가 향후 한샘을 되팔 경우 완전 인수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났다. 롯데쇼핑은 한샘 지분 인수로 현대백화점(리바트), 신세계백화점(신세계가사)과의 정면 승부를 앞두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이처럼 리빙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명확하다. 리빙과 인테리어 카테고리 경우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서 보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쇼핑의 중심축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기에 용이하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리빙 강화 전략은 ‘프리미엄화’다. 황 대표는 잠실점을 하이엔드 리빙 전문관’으로 탈바꿈시켰다. 롯데백화점은 잠실점이 1년간의 리빙관(9, 10층) 리뉴얼을 마무리하고 8일 하이엔드 리빙 전문관 ‘프라임 메종 드 잠실(Prime Maison de Jamsil)’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프라임 메종 드 잠실’은 영국의 콘란앤파트너스와의 협업을 통해 모두가 선망하는 고급스러운 대저택을 컨셉으로 했다. 2개 층에 걸쳐 6가지 큐레이션 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지난달 리뉴얼을 마친 9층은 ‘라이프스타일 제안 공간’, ‘트렌디한 베딩 컨텐츠 특화 공간’과 함께 ‘고감도 프리미엄 키친&테이블웨어 조닝’ 공간으로 구성했다. 이번에 오픈하는 10층은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플렉서블 공간’, ‘수도권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가구존’ 및 ‘가전 메가스토어를 통한 차별화 컨셉 공간’으로 구성했다.

기존 대비 약 70% 정도 면적을 확대한 가구 매장은 명품 가구 브랜드 ‘로세보보아



(Roche Bobois)’, 하이엔드 침대 ‘덕시아나(Duxiana)’를 비롯해 간결한 프렌치 무드의 ‘리네로제(Ligne Roset)’와 모던가구의 대명사인 ‘몰테니앤씨(Molteni&C)’ 등 36개의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가 오픈한다.

1일에는 대표적인 MZ세대 상권으로 꼽히는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에 큐레이션 리빙 복합 매장인 ‘테일라드 홈’을 오픈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리빙(22%)’은 ‘해외패션(29%)’에 이어 MZ세대가 가장 많이 구매한 상품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이엔드 리빙 편집샵 ‘더콘란샵’에서도 MZ세대는 매출의 37%를 차지하며 ‘루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롯데백화점 설명이다. MZ세대를 잡기 위해 롯데백화점은 테일라드 홈에서 수입가 구부터 조명, 오디오 등 약 20여 개의 ‘프

리미엄 리빙’ 브랜드를 준비했다.

황 대표는 내부적으로는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해 칼을 뽑았다. 롯데백화점 근속 20년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결정한 것. 롯데백화점의 희망퇴직은 창사 후 42년 만의 일이다. 지난달 23일 사내 공지를 통해 시작된 희망퇴직은 8일 종료로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롯데쇼핑은 희망퇴직에 대해 ‘체질 개선과 인력 적체 해소 차원의 조치’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체질개선 및 인재 순환의 일환”이라며 “채용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계에선 희망퇴직을 일반적으로 정리해고의 전 단계, ‘강력한 구조조정’의 신호로 해석한다. 회사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력을 줄이는 최후의 수단을 택했다는 것. 이 때문에 황 대표가 희망퇴직 조건과 관계 없이 ‘큰 결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컬래버는 계속된다” CU ‘마력 에너지링크’ 출시

말표산업과 에베레스트 등 2종
‘표’ 협업 3탄 해표 도시락 출시

CU의 컬래버 마케팅이 계속되고 있다. CU는 말표산업과 손잡고 에너지링크인 ‘마력에베레스트’와 ‘마력다크홀스’ 2종(각 1500원)을 업계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그간 CU는 콜라보 트렌드에 맞춰 말표산업과 화장품, 막걸리, 수제맥주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협업 상품들을 꾸준히 선보여 왔다.

대표 상품으로 꼽히는 말표 흑맥주는 지난해 10월 출시 3일 만에 초도물량 10만 캔 완판을 시작으로 1년 만에 누적판매량 1000만 개를 돌파하며 CU의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았다.

이번에 출시하는 마력에베레스트와 마력다크홀스는 피로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타우린이 일반 에너지링크보다 2배 가량 높은 2000mg이 함유돼 있다. 저칼로리 음료를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해 당류는 20g 미만(각각 0g, 19g)으로 낮췄다.

상품 패키지에는 에너지음료를 마시고 힘이 넘치는 모습의 말표산업 심볼 캐릭터가 디자인됐다. 상품명은 말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마력(馬力)’으로 정했다.

이와 별개로 최근엔 곰표, 말표에 이어 ‘표’ 컬래버 3탄 ‘해표’ 시리즈를 선보였다.

CU는 사조대립과 손잡고 참기름의 대명사 ‘해표’ 브랜드를 입힌 12종의 이색 상품을 도시락, 김밥, 찜빵, 분식, 냉장안주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5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단순히 브랜드 제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모든 제품에 해표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을 사용했으며 패키지도 특유의 빨간색 해표를 전면 디자인해 소비자 신뢰도와 친숙도를 높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가장 먼저 출시된 해표 옥수수 나물비빔밥 도시락(4300원)은 지역 특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충북 괴산군 대학찰옥수수와 함께 돼지불고기, 당근채 등 6가지 고품을 고추장과 해표 들기름을 넣어 비벼 먹는 건강식이다. 해표 전주비빔 삼각김밥(1100원), 해표 꼬마참치김밥(3500원) 역시 CU 스테디셀러에 각각 해표 참기름과 들기름을 넣어 고소한 맛을 강조한 제품이다.

CU는 10월 한 달 동안 최근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해표 참기름 김치전과 부추전, 기름떡볶이, 참기름 돼지김치찌, 백순대볶음, 들기름 두부김치 등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어메이징, 메타버스서 ‘진라거’ 론칭 브루어리 투어

수제맥주스타트업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이하 어메이징)가 진라거 론칭을 기념해 7일 업계 최초로 메타버스 브루어리 투어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어메이징의 이번 기자간담회는 ‘메타버스 이천 브루어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어메이징은 메타버스 공간에 실제 이천 브루어리의 외관과 생산라인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 메타버스 전문 기업 빌드옴과 함께 협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어메이징이 오투기와 협업해 선보인 진라거의 개발 과정과 특징 등을 소개했다.

김태경 어메이징 대표는 “수제맥주의 본질인 ‘맛’에 집중해온 어메이징과 오랜동안 맛의 본질에 충실한 국민 브랜드인 오



뚜기와와의 맛의 기본에 초점을 두고자 기획한 콜라보레이션’이라 설명하며 “진한 맛의 한국형 몰트라거의 맛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어메이징의 메타버스 이천 브루어리 투어도 함께 열렸다. 브루어리 투어에서는 맥주가 생산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했다. 메타버스 내 연결된 맥주 생산 설비의 실제 사진과 영상 등 구체적인 자료도 함께 제공됐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충청도 햇밤으로 만든 건강 간식

CJ온스타일 ‘오하루... 맛밤’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건강식을 챙기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CJ온스타일이 영양 간식으로 좋은 국내산 맛밤을 내놨다.

CJ온스타일은 10일 오전 10시 15분에 ‘이소라 프로젝트’ 방송에서 식품브랜드 ‘오하루 자연가득’의 국내산 맛밤을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단 하루, 이날 방송에서만 최저가에 판매하며 자동 주문 이용 시 1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40봉 구매하면 3봉을 추가 증정한다.

오하루 자연가득 국내산 맛밤은 국내 1등 밤 생산지인 충청도에서 올해 갓 수확한 햇밤으로 군밤의 향과 찜밤의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다. 설탕, 합성향료 등을 첨가하지 않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식약처의 HACCP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생산 시설에서 만들어졌다. 한 봉씩 깔끔하게 포장돼 있어 휴대하기 간편해 가을 나들이나 온 가족, 아이 간식 용으로도 좋다.

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미네랄 등 5대 영양소를 고루 갖춘 완전식품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타민C·D, 베타카로틴, 철, 엽산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함유한 건



강식품이다. 이번에 판매되는 ‘오하루 자연가득 국내산 맛밤’은 전량 9월에 만들어져 신선하고, 굵지 않고 찌는 방식으로 밤고유의 영양을 최대한 보존했다.

CJ온스타일은 이달 중 모바일 라이브를 통해 영유아를 위한 ‘신비한 국내산 맛밤’도 선보일 예정이다. 오하루 자연가득 국내산 맛밤에 인기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디자인을 더한 제품이다. CJ온스타일은 신비한 아파트 IP(지식 재산권)를 활용해 ‘신비한 배도라지’, ‘신비한 사과당근’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식품을 선보이고 있다.

박희정 CJ온스타일 헬스푸드 팀장은 “최근 건강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일반 간식에 비해 영양적으로 건강한 원물 간식의 인기가 높다”며 “햇밤의 신선함을 담은 오하루 맛밤으로 맛있는 가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제프 쿤스·데미안 허스트... 갤러리아, 백화점이야?

신세계百 본점 ‘블라섬 아트페어’
큐레이터 상주... 온라인 판매도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갤러리로 바뀐다. 신세계백화점은 본관 3층과 4층 명품 매장 사이 아트월에서 다음 달 6일까지 ‘블라섬 아트페어’가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최근 홈 인테리어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명 작가의 작품을 수집하거나 재테크하는 등 아트 컬렉팅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아트슈머(art+consumer)’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 지난 봄에 이어 두 번째로 매장 내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특별한 전시를 선보인다.

3월 처음 진행한 블라섬 아트페어는 명품 매장 가운데에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아트페어 기간에 선보인 공간 및



층형 아트 컨설팅은 한 달여간 꾸준히 마감율 이어가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신세계는 제 2회 블라섬 아트페어를 열고 ‘마스터스 에디션(MASTER’S EDITION)’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해외 미술계를 대표하는 유명 작가들의 페인팅 원화와 에디션 작품 100여 점을 소개한다.

우선 영국과 미국의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데미안 허스트와 제프 쿤스의 에디션 작품이 눈길을 끈다. 특히 데미안 허스트의 출품작인 ‘The Virtues’는 올해 발표된 작품으로 활짝 핀 벚꽃을 통해 싱그러움 봄날의 즐거움을 표현한 8점 세트다.

데이비드 호크니의 2014년 포토 드로잉 작품 ‘The Red Table’과 2019년 아이패드 드로잉 작품인 ‘My Window’ 시리즈도 고객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추상미술의 대표 작가 박서보, 하종현 그리고 MZ세대의 호응을 얻고 있는 와야의 신작도 감상 및 구매할 수 있다.

행사 기간에는 전문 큐레이터가 상주해 고객 상담 서비스도 함께 선보인다. 큐레이터는 집뿐만 아니라 사무실, 상가 등 다양한 공간에 어울리는 국내외의 미술 작품과 아트 오브제를 소개하고 구매를 돕는다. 나에게 어울리는 작품 제안부터 설치까지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다.

25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온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다. SSG닷컴을 통해 알렉스 카츠, 줄리안 오피, 무라카미 타카시 등의 에디션 판화 작품 40여 점을 판매할 예정이다. 남주현 기자 jooh@

2차 사전청약도 흥행 이어갈까… 남양주·인천·파주 주목

1만200 가구 15일부터 접수
1차 청약 물량보다 2배 많아
전체공급 40% 신혼부부 타깃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의 2차 사전청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차 사전청약 때보다 2배 넘는 물량이 쏟아지고 공급 지역도 11곳에 달한다. 수도권 전세난과 집값 급등에 지친 무주택자들이 2차 사전청약에 대거 나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의 2차 사전청약이 오는 15일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11곳에서 풀리는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1만200여 가구로 1차 때(4333가구)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지역별로는 △남양주시 왕숙2지구 1400가구 △성남시 신촌지구 300가구 △성남시 낙생지구 900가구 △성남시 북정2지구 600가구 △의정부시 우정지구 1000가구 △군포시 대야미지구 1000가구 △의왕시 월암지구 800가구 △수원시 당수지구 500가구 △부천시 원종지구 400가구 △인천 검단 지구 1200가구 △파주시 운정3지구 2100가구 등이다.

사전청약에 나서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수도권에 거주해야 한다. 공공분양 물량 중 85%가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일반분양은 15%에 불과하다.

2차 사전청약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곳은 파주시 운정3지구다. 무려 2100가구가 풀린다. 운정3지구는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지구로 수도권 거주자는 지역에 상관 없이 청약할 수 있다. 남양주시 왕숙2지구와 수원시 당수지구, 인천 검단지구도 모두 대규모 택지지구에 속한다. 다만 수원시 당수지구에서 공급되는 500가구는 모두 신혼희망타운 물량이다. 인천 검단지구나 파주 운정3지구는 2기



신도시로 이미 신도시 인프라가 조성 중이거나 일부 갖춰져 있어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 운정신도시에선 수도권광역교통철도(GTX)-A 노선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인천 검단신도시의 경우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과 함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2차 사전청약에선 1차 때처럼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한 물량이 대거 쏟아진다. 11곳 중 절반이 넘는 6곳(성남 낙생·성남 북정2·군포 대야미·의왕 월암·수원 당수·부천 원종지구)의 물량이 100%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로 공급된다. 총 4200가구로 2차 전체 물량의 40%를 넘는다. 여기에 공공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까지 더하면 신혼부부에 돌아가는 주택은 더 늘어난다.

신혼부부에 많은 청약 당첨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할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혼인기간이 7년 이내거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한부모 가족이어야 청약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130% 이하(맞벌이 140%)여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 6개월, 가입 횟수 6회 이상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과 신

혼부부 특별공급 모두 가점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관심사는 단연 분양가다. 사전청약 물량의 경우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그러나 앞서 1차 사전청약에선 인천 계양지구 전용면적 59㎡형이 3억5600만 원선, 성남 북정1지구와 위례지구는 전용 59㎡형이 6억7600만 원선에 공급됐다.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아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는 불만이 쇄도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1차 사전청약의 흥행 성적표는 우수했다. 총 9만3798명이 줄을 서면서 2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2차 사전청약 단지의 분양가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파주 운정3지구의 경우 운정신도시 전용 84㎡형 거래가격이 7억~9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6억 원을 넘는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분양가 논란이 일더라도 청약 대기 수요가 워낙 많아 흥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분청약 시점에 분양가 상승 가능성과 함께 입주 지연 등도 감안해 청약에 나서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황금 9호선’ 연장에 하남미사 호가 켜짐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미사지구) 일대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 문의가 늘고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강일지구~하남 미사·남양주 왕숙까지 잇는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이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연장되는 9호선 4단계 구간 연장구간은 9호선 4단계(중앙

다른 정차역 위치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9호선이 연장되면 남양주 왕숙~서울 강남권까지 45분대면 이동할 수 있다. 특히 하남시 미사지구

역 설계 반영이 논의 중인데, 급행역이 지정될 경우 미사·잠실종합운동장까지 약 15분, 여의도까지 약 25분가량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9호선 연장사업 기대감에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하남시미사지구 일대 집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푸르지오’ 전용면적 84㎡형은

현재 14억5000만 원을 호가한다. 지난달 4일 거래가(12억6700만 원)와 비교하면 한 달 만에 호가가 1억8300만 원 뛴 셈이다. 망월동 D공인 관계자는 “9호선 예타 통과 소식이 전해진 이후 평소 때보다 아파트 매입 문의 전화가 3배 넘게 늘었다”며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지하철 5호선 미사역 인근 ‘미사강변 센텀팰리스’ 전용면적 84㎡형은 현재 12억 원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이 지난 8월 10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후 두 달 새 1억2000만 원이 오른 것이다.

이재영 기자 lly0403@



고덕강일1지구 4.12km 구간 예타 통과로 강남 접근성 호재 미사푸르지오 한달 새 1.8억↑

고도제한 대못 뽑는 도봉구 31년 묵은 정비사업 ‘훈풍’

고층건물 불가 사업성 떨어져
“균형발전·재산권 보호 필요”
區, 규제완화 관련 용역 발주

서울 도봉구 북한산 인접 지역의 고도제한 ‘규제 대못’이 뽑힐 전망이다. 북한산 고도제한은 지난 1990년 설정된 이후 31년째 인근 지역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일대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공공은 물론 민간 정비사업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봉구청은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기준을 조정 및 완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북한산 주변 용도지구(고도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이달 5일 발주했다.

고도지구 여건 변화와 실태 분석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 등 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도봉구 내 고도제한 지역은 도봉1동과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등 약 116만㎡ 규모다.

고도지구는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 목적상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건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 최저 한도를 지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라고 한다.

서울 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944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3배 규모다. 주요 지역으로는 남산과 북한산, 구기·평창동, 경복궁 주변 등이다.

북한산 아래 도봉1동과 방학2·3동, 쌍문1동은 1990년 12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30년 이상 개발이 제한됐다.

북한산 일대 최고고도지구는 당초 지상 5층, 20m 이하로만 건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일대에는 지금도 저층 상가나 단독 주택만 즐비하다.

이후 2014년 북한산과 남산 일대 7개 지구의 층수 규제가 폐지돼 지금은 층수 제한 없이 20m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고층 건물 건설은 여전히 불가능해 정비사업 수익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런 문제로 일대 정비사업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쌍문1동 B공인 관계자는 “이 동네는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워 재개발을 한번 제대로 못 했다”며 “고도제한 해제는 일대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하루빨리 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대 고도제한 규제 대못이 뽑히면 주변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쌍문1동 덕성여대 후문 일대는 지난 4월 정부 도심



서울 내 주요 지역 고도제한 현황

위치	기준
남산	20, 30, 36m 이하
북한산	20m 이하
국회의사당	65m 이하
경복궁	15, 16, 18, 20m 이하
서초동 법조타운	28m 이하

※출처 : 서울시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곳에 총 1008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가구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도봉구 내 민간 재개발 구역은 현재 도봉2구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고도제한 기준이 조정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도봉3구역과 쌍문1구역의 사업 재시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도봉구 북한산 인접 지역의 경우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며 “고도를 낮추지 못한다면 건폐율을 늘리는 등 주민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신속통합기획〉 서울시, 특별분과위원회 신설 ‘재개발’ 속도

서울시가 오세훈표 주거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합친 ‘통합심의’를 도입하는 것이 그 골자다. 지난달 오세훈 시장이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관악구 신림1구역을 방문해 기존 ‘공공기획’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비사업을 검토한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다 보니 의견 수렴과 의사 결정 과정이 복잡해 졌다고 지적됐다.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중 선출한 5~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정점별로 집중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된다.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은 본회의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적용하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이달 29일까지 진행돼 이번엔 선정되는 구역들은 특별분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사업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 사항을 집중 검토해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분과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선 그간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특별분과위원회와 통합심의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 추진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법원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처분 부당... 여성으로 봐야”

전역 취소 청구소송 원고 승소
“성소수자 기본 인권·여론 고려”

국방부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연구용역 올해 내 착수”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성 소수자 인권과 맞물리며 국민적 관심을 받은 사건에서 “성전환수술을 심신장애로 본 군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첫 판례가 나온 만큼 향후 군대 문화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과 병력 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성전환수술을 통한 성별의 전환이나 정정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장병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전역 심사 역시 ‘남성군인’이 아닌 ‘여성군인’ 자격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2019년 군에서 처음으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육군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 전역시키자 인사 소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군 복귀 의지를 보이던 변 전 하사가 올해 3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소송 진행이 불투명했었다. 민사소송법상 행정소송도 원고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도록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신전속’이란

권리의 성질상 특정 권리주체만이 향유 또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변 전 하사의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게 해 달라며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소송이 재개됐다. 법조계에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다면 사법부가 소송 권리관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판결 직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은 성소수자들의 지친 마음에 닿을 희망으로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라며 “국방부와 육군은 항소를 포기하고 변 전 하사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연구 용역을 연내 착수할 계획이다.

구예지 수습기자 sunrise@

‘대리점 갑질’ 금호타이어 재판 회부

판매 가격 인상 강요·제품 공급제한 혐의

대리점에 일정 수준의 판매 가격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금호타이어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최지경 판사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금호타이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금호타이어를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금호타이어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업체에 최저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타이어를 판매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호타이어는 판매 업체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꾸준히 점검하고 미준수 대리점에 가격 인상을 강요했다”며 “제조사 방침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지원을 낮춰 대리점이 비싼 가격에 타이어를 공급하도록 했고 제품 공급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호타이어 측 변호인은 “2015년 이전의 경우 (가격 준수 정책)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만 했지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4월 대리점에 판매가를 강요한 혐의로 금호타이어에 48억3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금호타이어는 이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패소했다.

구예지 수습기자 sunrise@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도이치모터스 수사 김건희 향하는 검찰

수사 착수 약 1년 반 만에
핵심 피의자 첫 신병 확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 신병을 처음으로 확보했다. 7일 법조계에선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 등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사건 관계자가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이모 씨는 잠적했고, 김모 씨는 구속심사 연기를 신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잠적한 이 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사라진 이 씨는 이른바 ‘선수’로 활동하

며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 씨는 권 회장을 통해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 씨를 소개받아 증권계좌를 관리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 씨 등의 주가조작 범행과 김 씨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이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김 씨와 권 회장 등의 소환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이 사건에서 ‘전주’로 참여해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해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등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춘천 케이블카 오늘 개통 강원 춘천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가 개통을 하루 앞둔 7일 시범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가 고발장 보낼테니 접수를” 공수처 고발사주 김웅 녹취 복구

조성은 정보공개 청구... 판도라 상자 열리나

조씨 “나도 원본 들을 권리 있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 내용 녹취를 복구한 파일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정치권 등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며 공수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수처는 지난해 4월 3일 전후로 조 씨가 김 의원과 통화한 녹취 2건을 복구했다. 당시 조 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론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았다. 복구된 파일에는 김 의원이 고발장 작성 주체를 ‘우리’로 표현하고 대검찰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서울남부지검을 접수처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후 대검에 접수하도록 하면서 검찰 출신인 자신은 빼도록 하는 대화도 있었다. 특히 김 의원은 “검찰이 받기 싫는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접수되면 (잘 처리해 달라고) 얘기해 놓겠다”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당시 사용하던 A(휴대전화)가 (메모리) 용량도 크지 않고 여러 제보 전화 등 매일 수십

통씩 전화했기 때문에 자동 녹음본도 많고 용량 부족으로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해 많이 해 녹취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말 음성으로 들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복구된 녹취는 김 의원이 검찰 관계자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복구된 대화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고발장 전달 의혹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낸 정정식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고발장 초안은 정 의원을 거쳐 대검에 제출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1-1093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 시신을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는 유골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5.
종로구청장

□ 무연고 사망자 인식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주소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 원인	화장 일시	처리 방법
				납골장소			
계성문	62.05.10 (남)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245번지	2021.9.25.	서울시 종로구 대악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위장관 출혈	2021.10.7 11:00	화장 후 봉안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97가길 3(돈의동)		경기도 파주시 광 탄면 명불산로 (서울시립 용마리 무연고 추모의집)			

□ 무연고자 발생현황

- 사망장소 : 서울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287 (가리봉동) 정성요양병원
- 사망일자 : 2021. 9. 25.
- 사망원인 : 위장관출혈

□ 처리 및 안치(보관)장소

- 처리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 봉안기간 : 5년 (2021.10.7. ~2026.10.6.)
- 봉안장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명불산로
서울시립 용마리 무연고 추모의 집(☎1577-4595)

□ 공고기간 : 2021.10.5.~2021.11.5. (1개월간)

□ 연 락 처 : 종로구청 사회복지과(☎02-2148-2551)



“무료함은 인생 최대의 적… 잘 노는 게 잘 사는 것”

가수 홍서범

예능과 무대를 중형무진하는 다재다능한 종합예술인 홍서범이 오랜만에 본업인 음악으로 돌아왔다. 지난 3월에 그가 발표한 신곡은 ‘월든에 놀러간 니체’라는 다소 프로그래시브한 제목이다. 노래 내용도 제목 그대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자연 속 삶을 통해 물질주의를 비판한 명저 ‘월든’을 쓴 월든 호수에 ‘신의 죽음’과 실존의 중요성을 외친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찾아간다는 내용의 노래. 누가 봐도 보통 사람이 생각할 발상은 아니다. 그러나 홍서범에게 평범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신의 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신곡을 통해 다시금 세상의 문을 두드리는 그를 만나 독특한 인생관을 들어봤다.

“대중음악은 다양해야 하고 본인 생각이 담겨야죠. 인기만 좇는 건 창작자로서 할 일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아이들처럼 대 히트를 할 것도 아니고… 가요계에 데뷔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예전 록 스피릿으로 돌아가서 음악도 욕수답게 하자 싶었죠. 가사도 나이 들어서 사랑 타령 하기도, 이별 노래 하기도 그렇고… 대신 내가 삶에서 느꼈던 거, 내 생각의 중심이 뭔지 정리해서 발표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월든에 놀러간 니체’예요.”

홍서범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책 ‘월든’과 니체의 철학이 자신의 중심을 잡아줬다고 말한다.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서 삶의 본질에 대해 묻고자 출세를 접고 스스로 자연으로 들어갔다. 니체 또한 스위스 짐스마리아의 호숫가에서 요양을 하며 저 유명한 영원회귀 사상을 정리했다. 두 사람의 우연한 공통점은 호수에서 자신의 대표적인 사상을 만들어냈다는 것. 홍서범은 그 두 장면에 스쳐 지나가면서 ‘니체가 월든 호수에 갔으면 어땠을까’ 상상하게 됐다. 그리고 그 상상을 오롯이 노래로 만든 것이다.

홍서범을 통해 월든 호수를 만난 니체

노래의 비하인드를 들으니 과연 홍서범이었다. 노래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딱 두 가지로 나뉘었다고 한다.

“‘넌 왜 이렇게 안 되는 음악만 하냐’와 ‘이런 노래가 세상에 나왔다는 게 반갑다’였죠. SBS PD 했던 분은 ‘서범아 넌 이제 대중성 있는 것 좀 해라, 실험적인 음악 그만하고’라고 하시고, 저를 아는 분들은 ‘뭐 어차피 네가 할 음악 하는구나’라고 말하더군요. (웃음)”

자신의 음악을 누가 뭐라고 하든 관철한다는 게 그의 완고함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가 바라보는 요즘 아이들은 어떤

데뷔 40년… 삶에서 느낀 것 노래로 풀어
지난 3월 신곡 ‘월든에 놀러간 니체’ 발표
차려회 노래 부르고 내려오는 공연은 끝
7080 위한 뮤지컬 같은 작품 만들고 싶어
나이는 의미 없어… 최대한 즐기며 사세요



까? 혹시 그의 기준에 벗어나는 거슬림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예상외로 그는 요즘 아이들에 대해 무한한 긍정을 표했다.

“우리나라 대중음악은 일제강점기를 벗어나고 미국 팝 음악이 들어오면서 미8군 출신 가수들을 통해 급격히 발전했거든요. 일본은 처음에는 영미 팝을 따라가다가 자기들 특유의 제이팝을 만들었어요. 물론 일본은 워낙 인구도 많고 다양해서 수준이 있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혼란기가 있었던 게, 1980년대 중후반부터 제이팝을 많이 베꼈어요. 일본 음악이 금지였을 때 양심 없는 작곡가들이 많이 표절했죠. 그러다 일본 문화가 개방되면서 그쪽으론 못 간 거지. 그래서 다시 미국 팝을 추구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민족 특유의 음악성, 표현력, 특유의 한이 블랙 뮤직 이상인데, 그게 더해져서 성공했다고 봐요. 이 짧은 시간에 빌보드를 점령할 정도니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우수성은 저도 감탄하고 있어요.”

그는 주변을 봐도 노래와 악기 연주를 너무 잘하는 젊은 세대가 많다고 감탄했다. 더구나 디지털 문화가 보급되면서 과거보다 쉽게 원하는 걸 접하고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우리 때는 소위 음반을 구해도 ‘뻥판’이었고 악보도 없이 귀로 들어서 코드를 짰어요. 그러다 보니 이 팀 저 팀 코드가 다 다르고. (웃음) 지금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죠.”

뮤지컬 통해 7080 문화를 새롭게 바꾸고 싶어

홍서범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했다. 자유롭게 살길 바라는 그가 그리는 미래는 무엇일까?

“예전에는 7080 문화로 전국 투어 하고 해외 투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막혔죠. 이제 새롭게 해야 할 것 같아요. 7080 문화의 새 콘텐츠로 뮤지컬 같은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작가가 있어야 하고 투자자도 있어야 해서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공연할 때 나열식으로 차려회로 노래 부르고 내려오는 건 이제 끝났고, 그때 음악과 그때

사건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그 단계예요.”

7080을 위한 장기 공연 문화이면서 기존과는 다른, 뮤지션도 좋고 관객도 즐거운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판단은 비슷한 시대를 산 가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조용필조차 자신의 노래들을 바탕으로 뮤지컬을 만들려고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이는 현재 7080 뮤지션들의 공연 문화가 너무 일방적이라 답답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맞아요. 제가 시놉시스를 짰 후 작가를 불러서 이런 내용으로 써보라고 한 적 있어요. 그랬더니 ‘형, 이거 하려면 투자 많이 받아야 하고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도 모르는데’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일단 써놔야지!’ (웃음)라고 타박했죠. 앞으로 7080이 가야 할 길은 그쪽이에요. 새로운 문화를 자주 만들어서 방향을 바꿔야죠.”

잘 노는 게 잘 사는 것

홍서범은 한국식 나이를 단호히(?) 거부한다. 그가 강조하는 자신의 나이는 만 62세다. 환갑을 넘긴 그에게는 잘 노는 게 잘 사는 거라는 확고한 기준이 있었다.

“잘 먹고 잘 놀고 윤택하게 살다 가지, 나에게 주어진 대로 즐길 수 있는 최대한 즐기자는 생각이에요. 물론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민한다고 풀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아니면 내 능력 밖인가’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능력 밖인 고민은 접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럼 해보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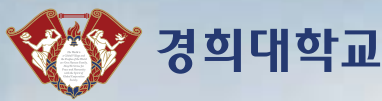
홍서범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한다. 그에게는 어떤 사람은 평생 갖지 못할 후회 없는 자유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니체 형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좋은 말씀이 ‘다시 살고 싶도록 그렇게 살아라’예요. 그럴 정도로 살아야죠. 어제도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북한산에 갔어요. 다들 대기업 사장 하다 명퇴했는데 삶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 날이 70대 중반까지면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원 없이 살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보면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러면 여행도 많이 다니고 노는 게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하니 개네들이 ‘야, 난 매일 놀아’라고 대꾸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야, 그렇게 놀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빈둥빈둥 노는 건 진짜 무료해’라고 답했죠. 무료함이 인생 최대의 적이에요.”

글/김영순 기자 kys0701@
사진/브라보 마이 라이프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힘내라 청년!
당신의
그로움을 응원합니다



〈가나다 순〉

“통합운영학교 사례 공유 플랫폼 구축 고민할 때”

서울 첫 유·초·중 통합...최창수 강빛초중이음학교장

학령인구 감소 서울 중심 확대 전망...학교폭력 걱정 없어
자유학년제 등 미리 경험, 초등 교사가 중학생 수업하기도

“100여 개의 통합운영학교 고층이나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최창수 강빛초중이음학교 교장은 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도심 학교에서 공동화 현상과 학생 수 감소, 학교 용지 확보 어려움 등으로 통합운영학교가 확대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통합운영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급이 다른 학교가 시설·설비와 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모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음학교’라고 부른다.

교육부에 따르면 통합운영학교는 전국에 110여 곳이 있다. 서울은 2곳에 불과하다. 강빛초중이음학교는 서울 지역 최초의 유치원 및 초·중 통합운영학교로 12일 개교식을 한다.

통합운영학교의 경쟁력은 행·재정적 통합이 꼽힌다. 행정실 통합은 물론 학사일정 운영까지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연구학교 운영비나 청소,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통합운영학교가 출범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최 교장은 “각각 별도의 급별 학교를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서울의 경우 통합운영학교가 확대되는 추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빛초 학생(오른쪽)이 강빛초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합운영학교가 ‘학교폭력’의 진원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었다. 최 교장은 “학기 초에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중학생에게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우려도 했었다”면서 “그러나 한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한 관계로 회복되는 등 순기능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가 통합돼 있어 학교폭력 발생 시 협업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며 “강빛초중이음학교의 경우 다자녀가 많은 편이라 중학생이 누군가의 형이나 누나의 친구 등으로 관계가 연계돼 있어 유치원과 초·중 학생 급우 간 사이가 어느 학교 보다 끈끈하다”고 덧붙였다. 최 교장은 “무엇보다 같은 울타리 내에서 생활을 오래 하는 게 장점이 돼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빛초중이음학교는 올해 2학기 초등학



최창수 강빛초중이음학교 교장은 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통합운영학교는 교정실과 행정실이 통합돼 있어 행·재정 및 조직면에서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교사들이 서로 공통사항을 유기적으로 협력하거나 협의하는 데 매우 탄력적”이라고 강조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교 6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년간 시험 없이 진로 관련 수업을 듣는 제도로 자유학기제에서 시작됐다.

최 교장은 “중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생들은 남은 2학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올해 2학기부터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중1 필수 과정인 자유학년제 과정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학년제에 대해 몰랐던 (초등)학생들이나 이 시기에 어떻게 진로 체험을 하며 성적관리를 할 수 있는지 미리 알려주는 방식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올해 4월 강빛중 자유학기제 생태체험에 강빛초 선생님이 중학생에게 들려주는 생태수업을 진행한 적도 있다. 최 교장은 “통합운영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과정”이라며 “학생들이 정해진 급별 교원이 아닌 다양한 교원에게 알차고 풍성한 수업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빛초중이음학교는 유치원 13학급(학생 수 159명·특수 2학급 포함), 초등학교 32학급(학생 수 507·특수 1학급 포함), 중학교 19학급(학생 수 159명·특수 1학급 포함) 등 총 64학급, 학생 수 825명, 교원 92명 규모의 학교다.

손현경 기자 son89@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에
박중신 서울대병원 교수 취임

서울대학교병원은 박중신 산부인과 교수가 대한산부인과학회 제25대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기는 2021년 10월부터 2년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산부인과학의 발전과 모자보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1947년 설립됐다. 현재 약 8000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박 신임 이사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교육연구부장과 서울의대 교무부학장,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대한의학회 부회장, 대한모태태아의학회 부회장, 한국의학 교육학회 부회장, 아시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학회 집행이사,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강태우 수습기자 burning@

인사

◆교육부 ◇승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신종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강경자 △감사총괄담당관 최기수 △교원정책과장 윤소영 △교육시설과장 정영린 ◇전보 △국립국제교육원 김지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상진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자동차정책과장 배석주 △대통령비서실(파견) 허경민 △항공산업과장 심지영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장 김준수

◆중소벤처기업부 ◇국장 승진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우순 ◇과장 전보 △제조혁신정책과장 김민규 ◇과장 승진 △소설보상과장 정의경 △기술창업과장 강신천

◆조달청 ◇과장급 전보 △청장실 비서관 신봉재 △국유재산기획과장 유경숙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장 박이철 △대구지방조달청장 이경원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평가실장 박지호

◆아이에이치큐 △모바일부문장 상무 정혜전 △모바일기획본부장 이사 정세영

부음

▲배창기 씨 별세, 배중무(싸이닉스 시스템즈 대표이사)·종찬(인사이트 케이 연구소장) 씨 부친상, 이은경·김민정(백석예술대학교 교수) 씨 시부상 = 6일, 분당서울대병원 10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031-787-1510

▲김기룡(전 홍익대 전자계산학과 교수) 씨 별세, 이숙임(이화여자대학 명예교수) 씨 남편상 = 6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6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02-2227-7584

▲장정숙 씨 별세, 김장선(전 GM중국지사장)·성호(전 청와대정책수석 보좌관)·성훈(피부와 병원장)·예순·정화씨 모친상, 최일규(전 금융감독원 팀장)·현방훈(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 씨 장모상 = 7일,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 02-3410-3151

▲노태연 씨 별세, 김기홍(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전 세계일보 논설실장) 씨 장인상 = 7일, 부산 BHS 한서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 051-751-1860

▲이계영(전 한국일보 제작국 부국장) 씨 별세, 김문자 씨 남편상, 이규원(세계일보 광고국 차장)·규진(18씨티코리아 부장) 씨 부친상, 송나윤(문화공감 대리) 씨 시부상 = 6일,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02-958-9548

한미약품, 창업주 임성기 기념관 개관



한미약품은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삶을 기리는 ‘임성기 기념관’을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 20층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기념관은 민현식 작가가 공간을 구성했으며, 조각가 신문섭 작가가 만든 임 회장 흉상을 비롯해 생전 일군 창조와 혁신의 연구·개발(R&D) 산물 127자가 전시됐다.

유혜은 기자 euna@

‘포니정 영리더상’ 김연정·이승건



포니정재단은 ‘포니정 영리더상’에 배구 선수 김연정(왼쪽 사진)과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오른쪽) 대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연정 선수는 1988년생으로 2004년부터 청소년 국가대표로 발탁된 이후 계속 정상의 자리를 지키며 한국 여자 배구가 새 역사를 쓰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1982년생으로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한 뒤 안정적인 치과 의사 생활을 포기하고, 8번의 창업 시도 끝에 2015년 국내 최대 핀테크 서비스인 ‘토스’를 탄생시켰다.

포니정 영리더상은 만 40세 이하 젊은 혁신가를 응원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됐다. 시상식은 내달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포니정홀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연합뉴스

기아 ‘안전·건강·환경 일터 조성’ 노사공동 선언

안전예방수칙 제정 중대재해 제로화 노력하기로

기아 노사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환경적인 일터 만들기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아 노사는 6일 오토랜드 광명(Auto Land 광명)에서 기아 대표이사 최준영 부사장,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최종태 지부장 및 각 공장과 판매, 정비 등 5개 부문의 노사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안전·건강·환경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아 노사는 ‘안전·건강·환경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문’을 공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당사 임직원과 사내 협력사 인원의 안전·건강 확보 및 환경 보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이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아 노사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공동 안전예방수칙’을 작성해 중대 재해 제로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아 관계자는 “노사공동 선언문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하고, 환경적인 일터 만들기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다짐했다”며 “앞으로 기아는 ESG 경영의 한 축



최준영(왼쪽) 기아 대표이사 부사장과 최종태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은 6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안전·건강·환경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기아

으로서 안전 관리 체계를 실현하고 노사가 모든 업무 영역에서 안전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한화토탈 ‘사막화 방지 숲 조성’ 1000만원 기부

한화토탈은 6일 국제환경보호단체 푸른아시아에 사막화 방지 숲 조성을 위한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기금은 지난달 6일부터 4주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빅워크’로 진행한 ‘가족과 함께 하는 걷기대회’에서 모은 걸음 수로 마련했다. 회사 임직원과 가족 외에도 9000명 이상의 일반인 참여자를 비롯해 총 1만319명이 참여해 2억9000만 걸음을 기부했다. 2억9000만 걸음은 거리로 환산하면 14만5000km에 달한다. 이 거리만큼 탄소를 배출하는 이동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30년산 소나무 약 530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푸른아시아에 전달한 기부금은 기후변화로 사막화가 진행 중인 몽골 등의 지역에 나무를 심어 ‘한화토탈 숲’을 조성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번 걷기대회에서 가장 많은 걸음을 기부한 LDPE 생산팀 홍성규 포맨은 “온 가족이 모두 앱을 설치하고 틈틈이 걸음 수를 기부했다”며 “가족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이벤트였다”고 밝혔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CJ대한통운, 광주 초등생 ‘안전가방덮개’ 지원

CJ대한통운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빛반사 안전가방덮개’ 1000개를 경기광주경찰서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경찰서는 전달받은 안전가방덮개를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올해 개교한 경기도 광주시 신현초등학교, 광주 송정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굿네이버스가 함께 기획 및 진행을 담당했다.

빛반사 안전가방덮개는 키가 작아 운전자 시야에 들어오기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제작된 안전용품이다. 책가방에 씌우는 형광색의 덮개 형태로 중앙에 있는 빨간 원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인 30km를 뜻하는 숫자 ‘30’이 표시돼 있다. 빨간 원은 빛반사 소재로 제작돼 야간이나 우천시에도 눈에 잘 띄도록 도와준다. 특히 화물차, SUV 등 차체가 높은 차량이 주행할 때와 인도·차도 구분이 없는 보행로에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은 CJ대한통운이 2017년부터 전개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청송군에는 2010년부터 이미 네 개의 교도소가 들어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여자 교도소를 하나 더 유치하기 위해 ‘청송 교정시설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역 사람들이 힘을 합쳐 노력하는 중이다.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으로 마을을 종합교정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 동네엔 혐오시설을 둘 수 없다는 남비(NIMBY)의 통념을 뒤엎고 핼피(PIMFY)로 바꾼 사례다.

최근 코로나19를 지나며, 우리가 머무르는 공간이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실감하게 된다. 공간과 복지를 연결하고 마을을 살리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우리에게 변화를 향한 영감과 새로운 기대감을 준다.

‘SH 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프로젝트는 주거지로는 열악한 반지하 공간을 리모델링해 마을 공간복지 시설로 바꾸는 참신한 사업을 진행했다. SH공사가 매입한 서울 여섯 개의 노후주택 반지하 공간에 청년 건축가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수리해서 주민 편의시설, 커뮤니티 다이닝 공간, 마을 자료실, 전시장 등의 우리 마을의 공간복지 시설로 탈바꿈해낸 것이다.

지난 9월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우여곡절 끝에 지어진 기양동의 한 특수학교가 서울시 건축대상을 받은 일도 있었다. 2017년 당시 장애 학생의 엄마들이 주민 토론회장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어 잘 알려진, 다큐멘터리 ‘학교 가는 길’의 바로 그 특수학교다. 교육청 프로젝트라는 한정조건 속에서 적은 예산으로 지어진 특수학교 건축물에는

발달장애 아이들이 가진 특성과 교육을 연계하는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한 세심한 정성이 곳곳에 배어있다. 공간지각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헤매더라도 한 층에서 맴돌도록 ㄴ자로 지은 건물, 불안증세가 있는 학생들이 언제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넓게 지어진 복도와 안정실,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고려해 높낮이를 다양하게 설정한 중정의 의자들, 휠체어 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놓은 화분. 무릎 꿇은 엄마들의 간절함 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면서도 배려의 디테일이 남치는 건축물이 세워진 것이다.

낙인 찍힌 혐오시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마을 만들기를 추구하는 반전의 마을도 있다. 경북 청송군 사람들이다. 청송군에는 2010년부터 이미 네 개의 교도소가 들어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여자 교도소를 하나 더 유치하기 위해 ‘청송 교정시설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역 사람들이 힘을 합쳐 노력하는 중이다.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으로 마을을 종합교정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도관들을 위한 생활시설이

활성화되고, 교도소 면회객이 오가며 청송의 특산품인 사과나 고추 등을 사가면서 소비가 진작되며, 교정시설 관련 종사자를 위한 일자리도 만들어진 지난 십여 년의 경험이 토대가 됐다. 우리 동네엔 혐오시설을 둘 수 없다는 남비(NIMBY)의 통념을 뒤엎고 핼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로 바꾼 사례다.

공간을 이용하는 이들, 마을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 나감으로써 변화가 더욱 빛난다. 2018년 발간된 간다 세이지의 ‘마을의 진화’는 일본의 산골 마을 가미야마의 지역재생 성공담을 자세히 들려준다. 비영리법인 그린벨리를 주축으로 마을 주민들이 일궈 가는 마을의 진화 이야기다.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원격 근무를 통해 창조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정보기술(IT) 회사의 위성 사무실을 하나씩 유치하면서 이 작은 마을은 점점 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직원들은 산속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컴퓨터로 일을 하고, 동네 초등학교에서 인터넷을 사용한 특별 수업도 진행한다. 따뜻하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가미야마에 이

주해 온 IT 기업, 웹디자이너, 건축가, 예술가, 요리사, 수제구두 장인들은 이 작은 마을에서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움직인다. 주민들의 도움으로 이 마을의 산에 설치된 예술 작품 ‘숨겨진 도서관’은 주민들이 일생 동안 세 번, 졸업-결혼-퇴직의 전환기에 책을 도서관에 기증하면서 기억을 공유하고 추억하는 장소가 됐다. 이 책에서 인상적인 대목은 이 마을 사람들의 말이다.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될지 설렙니다’.

복지와 지역 공헌을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 우리의 공간에 기왕이면 누구나 문턱 없이 누릴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구현해 내는 일,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일, 내가 하는 일에서 누군가를 위해 도움을 기뻐하며 보람을 얻어 가는 일. 우리가 몸담은 마을과 직장 곳곳에서 ‘설레는 프로젝트’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 공간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들과 신선한 협업을 통해 설레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행복한 시민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대방로

김재수

동국대 석좌교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필자는 베이비부머 첫 세대이다. 이들은 대부분 은퇴했거나 조만간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세 가지 불만이 있다. 첫째는 정부나 국가에 대한 불만이 많다. 식사나 술자리나 앉으면 온통 정부 비판 일색이다. 둘째는 청춘을 바쳐 일해 온 과거 직장 후배들에 대한 불만이 많다. 선배들을 존경하지 않고 고마움도 모른다는 것이다. 자신들은 직장 선후배들의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축의금·부의금을 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셋째는 자기 가족에 대한 불만도 많다. 가장으로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 왔는데 가족들이 자신이 살아 온 과거를 알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만이 아니라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기업인, 은퇴자 등 공통적으로 불만이 가득하다.

농촌 진흥청에서 지난해 ‘농업으로 국민을 힐링하자’는 취지의 법을 제정했다. ‘치유농업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

치유농업으로 국민 힐링

치 치유농업법)을 제정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치유농업을 통해 국민을 위로하고 힐링시켜 주는 것이다. 치유농업은 치유(healing)와 농업(agriculture)이 합쳐진 개념이다. 영어로는 애그로 힐링(agro-healing)이라고 한다.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에서는 그린 케어(green care), 케어 파밍(care farming)이라고도 하며, 최근 중시되는 녹색치유(green care),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과도 연관이 깊다. 자연이나 농업을 이용해 건강을 회복한 역사는 오래됐다. 중세 유럽에서는 병원에서 정원을 가꾸거나 소규모 텃밭을 조성해 환자들의 재활에 활용했다. 치유농업 대상도 초기에는 노약자나 장애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국민 모두가 대상자이다.

치유농업법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한다. 치유

의 대상이나 범위는 다양하고 치유 자원도 여러 가지이다. 원예작물의 재배에서 시작한 식물 치료는 꽃을 재배하거나 식물을 기르면서 정신이나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다. 곤충을 사육하거나 동물에게 먹이를 주면서 하는 재활 치료는 상당 수준 발전됐다. 음식치유나 문화 활동, 숲을 거닐면서 하는 치유도 다양하다. 치유농업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현대 정신의학 및 작업치료의 권위자인 미국의 벤자민 러쉬 박사는 원에 활동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준다고 강조한다.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도 그러하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들에게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난다. 인슐린 분비기능이 47% 증가했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28% 감소했으며, 허리둘레가 평균 2cm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치유농업은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이기에 효과 평가가 어려운 부문도 있다. 국내에

서 치유농업의 경제적 효과는 약 3조7000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공공의 건강, 사회통합과 포용, 교육과 훈련, 지역 개발, 심리적 효과, 자존심 고취 등을 포함하면 그 이상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치유농업을 추진하기에 많은 장점이 있다. 치유 자원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좋다. 산과 강·하천이 많고 사계절 변화도 뚜렷하다. 누구나 쉽게 숲길을 걷고, 식물을 키우고 동물 먹이를 줄 수 있다. 음식관광이나 문화체험도 쉽게 할 수 있다. 교육농장, 체험농장이 많이 운영되어 치유농장으로 발전하기 좋다. 끝없는 경쟁으로 치달는 사회, 정치 지도자들의 부조리와 부패, 거대 자본의 횡포, 코로나19로 국민은 힘들고 지쳐 있다.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에게 농업과 농촌을 통한 치유는 매우 유용하다. 치유농장 운영을 통한 농촌 소득 증대도 기대된다. 치유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치유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자. 새 정부의 핵심과제로 치유산업 육성을 기대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제갈량(諸葛亮) 명언
“욕심을 없애고 마음이 정갈해야 뜻을 맑게 가질 수 있으며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해야 원하는 바를 이룬다.”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승상. 자는 공명(孔明). 유비(劉備)를 도와 오(吳)의 손권(孫權)과 연합해 조조(曹操)의 대군을 적벽(赤壁) 싸움에서 대파했다. 유비가 제갈량에게 아들 유선(劉禪)을 보좌하되, 무능하면 몰아내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라 유언했으나 끝까지 후주(後主)를 보필했다. 그는 오늘 숨을 거두었다. 181~234.

☆ 고사성어 / 식소사번(食少事煩)
먹는 것은 적고 일은 많다는 말. 몸을 돌보지 않고 바쁘게 일한다는 뜻이다. 위(魏)와 대치할 때 제갈량(諸葛亮)의 사자에게 사마의(司馬懿)가 공명의 안부를 묻자 “승상께선 새벽부터 밤중까지 손수 일을 처리하시며 식사는 아주 적게 하십니다”라고 했다. 사마의는 “먹는 것은 적고 일은 많으니 어떻게 오래 지탱할 수 있겠소[食少事煩安能久乎]?”라고 했다.출전 삼국지(三國志).

☆ 시사상식 / BMI
체질량지수. 체중(kg)을 키의 제곱(m²)으로 나눈 값을 통해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이다. 체질량지수가 26인 경우에는 21인 사람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여성의 경우는 8배, 남성은 4배에 달하고 담석증 및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도 2~3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신조어 / 너또다
‘너또 다이어트 하니’의 줄임말. 다이어트를 시작했으나 말만 요란할 뿐 성과가 미흡한 친구나 지인을 놀리거나 나무라는 투로 쓴다.

☆ 유머 / 포도 다이어트
살 빼기에 도전한 여인이 포도 외에는 물밖에 안 먹은 지 3일째에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서 진찰을 끝낸 의사에게 어머니가 “영양실조조?”라고 묻자 의사가 한 대답. “농약 중독입니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안 경 무 유통바이오투/noglasses@

불탄 채 남은 쿠팡 덕평물류센터를 바라보며

구체적인 철거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고 후 기존 물류센터에서는 안전 수칙이 강화됐는지도 궁금했다. 이 관계자는 “쿠팡은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안전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는 없었다.

사고 처리 지연이나 추가 조치 미이행보

다 더 큰 문제는 허술한 소방 안전 체계가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염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면적 10만㎡ 이상 물류창고 5개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35개소의 화재수신기 로그 기록(7월 1~10일)을 분석한 결과 30개소에서 570회의 화재 신호 오작동

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415억원의 손실을 낸 덕평물류센터 화재 원인도 방재실 관계자들이 화재 경보를 오작동으로 간주해 6차례나 끄면서 화를 키운 탓이었다.

화마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방이다. 오 의원은 “소방 대상별로 수신기 로그 기록과 오동작으로 인한 출동 사례 등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분석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의 화재 예방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안전 전문 인력 고용과 관련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덕평물류센터가 검게 탄 모습으로 흉물처럼 남아 있는 동안, 사고에 대한 반성과 예방을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할 것이다.

이슈&인물

쌍용차 국가손배소 취하 결의안 통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쌍용차 사태 이후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쌍용차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12년이 흘렀습니다. 노동자들과 가족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8월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장,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연단에 섰다. 이날 거대 양당 입법 독주로 쌓인 46개 안건 중 마지막이 그의 차례였다. 그는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사건 소 취하 촉구 결의안’ 취지를 한 글자씩 소중히 읽어 내려갔다. “정부로 하여금 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며...”

전광판에 ‘찬성’을 뜻하는 초록색 불이 하나들 들어와도 그는 좀처럼 긴장을 내려놓지 못했다. 길어진 본회의에 의원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떴기 때문이다. 자칫 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부결될 수 있다. 어느덧 그의 눈은 ‘찬성’보다 ‘재적수’에 쫓혀 있었다.

쌍용차 사태, 결의안 통과까지 12년

이 의원은 “이날 생각하면 아직도 콩다 콩닥해요. 이날 유독 많은 안건에 심지어 마지막 순서. 하나둘 자리가 비워지기 시작하는데, ‘아, 반대로 부결 나는 게 아니라 정족수가 문제가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누가 나가는지 애당초 쳐다보니 눈이 마주친 한 의원은 일어섰다 다시 앉기도 했네요. 그렇게 눈빛 교환한 분도 여럿 되네요(웃음)”라고 회상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06인, 반대 40인, 기권 7인. 가결이 선포됐다. 이 의원은 비로소 깊은 안도의 숨을 내릴 수 있었다. 눈시울이 붉어진 그를 향해 동료 의원들이 “고생했다”는 말을 건넸다. 하루 전 언론중재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본회의를 파행한 상황에서도 국가 폭력을 멈추자는 결의안 처리에 견해차가 크지 않았던 것이다. 가결되자마자 그는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합니다.”

이 의원은 “사실 ‘반대’를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이미 공동발의자만 299명 중 117명이었거든요. 제가 직접 여야 의원들 직접 만나면서 설득한 만큼 자신 있었죠. 그럼에도 47명의 반대나 기권이 있다는 점은 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더 찾아가서 얘기할 걸. 당시 행안위에 상정된 법안들을 보면, 5·18이나 여순사건과 같이 국가 폭력 치유에 관한 특별법도 올라온 만큼 기대도 컸어요. 하지만 정작 상임위 문턱을 넘는 데까지가 1년이 걸렸어요. 높은 문턱에 왜 우리는 정작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 폭력을 치유하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직도 마침표 찍지 못한 국가폭력”

앞서 경찰은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 과정에서 크레인·헬기가 파손되고 경찰이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며 101명의 노동자를 상대로 24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9년 7월,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파업 진압 과정에서 있었던 경찰력 남용과 인권 침해를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같은 해 2월, 손배소에 따른 임금 가압류는 해제하면서도 소송은 계속 끌고 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전 명백한 ‘국가 폭력’입니다.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경찰청 등 국가가 쌍용차 사태 손해배상 취하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무엇보다 쌍용차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공권력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이은주 의원실

경찰, 노동자 상대 24억 손배소
경찰력 남용·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도 소송은 계속 끌고가

노동자·가족 30명 세상 떠나고
손배액 지연이자 매일 62만원씩
국회 결의안 통과에도 1년 걸려

10년 넘게 지속된 사회적 갈등
노동자·경찰·시민사회 화해 위해
‘소 취하’ 정부·경찰이 답 내놔야

결과도 있고 전임 경찰청장까지도 사과한 상황이에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부당한 강제 진압 책임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은 정당성이 결여됐다고도 판단했어요. 취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상황이 충분한 데도 경찰은 (소송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경찰 태도를 보면서 ‘국회가 나서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라고 밝혔다.

판결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나서야

지난해 9월, 이 의원은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을 담아 결의안을 만들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달라는 취지에서다. 그는 소송 취하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가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강제 진압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의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1년 넘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그는 쌍용차 노동자들과 행안위 여야 간사, 여당 정책위의장과의 간담회 자리도 만들어가면서 직접 설득했다.

결의안이 본회의 통과된 날, 그간 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켜본 윤지선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활동가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그는 “개인적으로 소수정당에서 대표 발의한 안건이 상임위에 상정되고 통과되는 과정을 면밀하게 보게 된 기회였다. 이는

주 의원은 여야 의원들 한 명 한 명 만나 설득했다고 들었다. 실제 자세를 낮추고 발로 뛰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잔상처럼 남아 있다”고 밝혔다.

회사 노조 상대 손배소 선고 연기

20억 원이 넘는 국가 손해배상액은 국가폭력의 연장선이 됐다. 지금도 이들이 갚아야 할 지연이자 매월 62만 원씩 쌓인다. 심적 압박을 느낀 30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이 생을 마감하는 비극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7월, 김득중 급속노조 쌍용차지부장장은 김창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10년 가까이 이어지는 소송으로 인해 해고자들은 당시의 상황을 계속 복기해야 하고, 그에 따른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것도 보이지 않는 국가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느 순간부터 아침마다 신문 펴기가 겁이 나는 날이 오더라고요. ‘지살 도미노’ 현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이 우리 곁을 떠났는데도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는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살아남은 사람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결의안 통과가 곧 쌍용차 소송의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정치권과 법조계가 이번 결의안을 주목한 이유는 국가가 제기한 소송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이다. 이투데이가 이 의원을 만난 지난달 30일, 쌍용자동차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연기됐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날 대법원에 예고 없이 이례적으로 선고를 미루자 일각에선 사법부가 이번 국회 결의안을 고려해 숙고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경찰청은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의안은 ‘경찰은 가해자, 노동자는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쌍용차를 둘러싸고 10년 넘게 지속된 사회적 갈등을 매듭짓자는 메시지입니다. 노동자, 경찰, 시민사회가 화해하기 위해선 국가의 소 취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국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확인시킨 만큼 정부와 경찰도 합당한 대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라고 촉구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사설

내용 몰라 못지킨다는 중대재해법, 기업만 골탕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지만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고, 이는 의무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모호한 내용의 법 시행을 밀어붙이면서 산업현장의 일대 혼란과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종업원 50인 이상 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중대재해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실태’에서 나타난 결과다. 전체의 66.5%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종업원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답변을 한 곳이 77.3%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유(중복응답)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47.1%)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준비기간 부족’(31.2%), ‘과도한 안전투자 비용’(28.0%)을 꼽았다. 또 준수하기 힘든 규정은 ‘인력·시설·장비 확충과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41.7%), ‘의무 이행 사항 점검 및 개선’(40.8%)을 들었다. 법 시행 시 가장 큰 애로는 ‘의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자 처벌’(52.2%), ‘과도한 형벌에 대한 공포’(43.3%) 순이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9월말 국무

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경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지, 중대재해의 기준과 범위가 뭔지 모호하다. 형벌의 과잉에 대해 경영계가 거듭 우려하고 제도보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영 위축,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이 불보듯 뻔하다. 법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주의 의무는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게다가 근로자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사업주에 지울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더욱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산업안전권을 강화하고 사업장 재해를 막는 것은 당연한 방향이다. 그러나 처벌 일변도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고, 이런 상태로는 법이 제대로 된 구실도 할 수 없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가장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74.2%)과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꼽았다. 산업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 시행은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기업들의 현실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경영책임자에 산업재해의 무한책임만 지우고 과잉처벌이 남용될 소지만 큰 법 규정을 빨리 손질하고 보완해야 한다.

한 컷



보행자 통행 방해하는 키포드

공유 전동킥보드 급증,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오토바이 배달 수요 격증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에 공유 킥보드가 5만 5000대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행자 통행 방해가 56% 증가했다. 인도 주행 등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증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실질적이고 일관된 행정 조치와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RE100] 가입

지구에게 100점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SK하이닉스가 RE100에 참여합니다

사용전력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조달하는 친환경적인 노력으로

반도체 기술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고민을 아끼지 않는
ESG경영 실천 기업이 되겠습니다

